

월간

# 우리 문화

MAGAZINE

2001 **6**

월간 우리 문화 · 2001년 6월호(통권152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 특집 문화인물로 선정된 애국선열

김구·김좌진·안중근·안창호·이희승·정인보·이원복·이운재  
김형숙·황현·남궁억·박은식·신채호·최현배·장지연

이제 '엣대기문화'는 가라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㉓ 여주문화원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나이 겨우 80 "문화상품은 시작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를 숙여  
호국 선열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달이다.  
사진은 국립현충원에서 풀을 뽑고 있는 보이스카웃 단원들.

2001년 6월호(제15권 6호 통권 152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권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편집주간 / 柳長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6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 C o n t e n t s

### 차례

|                          |  |     |
|--------------------------|--|-----|
| 4 ◆ 권두칼럼                 | 이제 '겹데기 문화'는 가라  | 조남식 |
| 7 ◆ 이달의 문화인물             | 국문학의 올과 날을 세운 가람 이병기                                   | 편집부 |
| 8 ◆ 행사                   | 높은 참여율... 진지한 자세로 토론벌여                                 | 류장수 |
| 14 ◆ 행사                  | 현장감 넘친 문화·정보화 교육으로 큰 호응 얻어                             | 강민철 |
| 18 ◆ 행사                  | 문화가족 3백여명 김포문화유적 돌아봐                                   | 편집부 |
| 19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㉔     | 한만규 여주문화원장 / 박용국 여주군수 인터뷰                              | 강민철 |
| 27 ◆ 특집   보훈의 달          | 문화인물로 선정된 애국선열   | 류장수 |
| 43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 '충남 지역문화 현장탐방·대화 및 컨설팅' '2001, 지역문화의해' 사무국             |     |
| 51 ◆ 민속                  | 단오의 민속학적 의미  | 김의숙 |
| 54 ◆ 특별기고                | 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                                     | 이인규 |
| 56 ◆ 정체성 수호와 역사 의식 ㉔     | 백제 문화의 기반과 그 세계관                                       | 이도학 |
| 58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 나이 겨우 80 "문화상품은 시작이다"<br>- '입체형' 민속액자 만드는 에덴상공사 박사도 회장 | 강민철 |
| 60 ◆ 이사람                 | "진달래엔 한국인의 삶이 뭉뚱 들어있어요"<br>- 제1회 면천진달래 축제 기획한 이인화씨     | 강민철 |
| 62 ◆ 컬처포커스               | "전통문화도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해야"                                   | 강민철 |
| 64 ◆ 게시판                 | 저작권 등록, 권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                                  | 편집부 |
| 66 ◆ 전국문화원연합회사무국직원 체육대회  | 수려산 산행,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                                    | 류장수 |
| 68 ◆ 신간안내                |  | 편집부 |
| 70 ◆ 문화원 소식              |  | 편집부 |



# 이제 ‘땀땀기 문화’는 가라

**올** 해는 문화의 21세기 첫해 신사(辛巳)년이다. 지난 1941년의 신사(辛巳)년은 시련과 치욕의 해로 오늘의 신사(辛巳)년은 그때의 시련과 치욕을 깨닫고 씻어낼 정신문화유산을 창출해야할 각성의 신사(辛巳)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치심(恥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941년의 신사(辛巳)년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미·영에 선전포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해이다. 이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간 우리민족 특히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희생물이 된 꽃다운 처녀들, 군인으로 끌려간 청년들..., 한마디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세계2차대전의 희생물이 되어버린 시련과 치욕의 역사교훈을 우리는 문화의식에서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기에 말이다.

다시말해서 미래에 대비하지 못했던 지난 세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21세기 대비에 역동적이어야 함에도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미약하다.

지난해 2000 새로운 예술의 해에 이어 올해는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게 되었다. 진정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식에서 자성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송두리째 수탈해간 일본은 두 번에 걸친 세계노벨문학상의 수상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노벨문학상 수상국이 되지 못한 문제점도 오늘의 문화경쟁(전쟁)에서 또한 일본에 뒤져진 치욕이 아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두레정신’의 공동체 의식과 응집력이 강한 독립정신유산마저도 분열시키기 위해 81년전인 1920년에 일본이 던져준 ‘화투’ 놀이 문화로 정신을 마취시켜 버렸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고스톱 화투’ 놀이로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건전한 가치관의 정신문화를 만들고자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 또한 치욕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깊이 깨우쳐 져야만 한다.



조 남 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장  
· 영광문화원장

아직도 우리의 문화는 외래문화에 잠식당하고 이에 모방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걸만 번지르르한 '속빈문화' 만 범람하게 창출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유(思惟)를 통한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새천년 문화의 21세기에 문화경쟁(전쟁)에서 이겨내는 힘과 지혜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21세기의 문화세기가 오기 이전에 이미 서구문화와 일본문화가 국경없이 무한하게 인터넷을 통해 물밀듯 범람해 우리문화가 파괴되고 말았다.

초고속 정보문화시대가 실감나게 우리 눈앞에서 초단위로 전개, 변화·진화 되고 있지 않은가? 천지개벽하듯...

'문화가 미래를 창조' 하고 '일등나라 일등국민도 문화가 만든다' 는 것은 문화의식이 있다면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저마다 문화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경쟁력시대, 세계화시대에 문화는 다행스럽게도 산업의 창조자, 정치의 동반자, 사회의 정화자로 인식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의지는 여전히 미약(취약)한 채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껍데기가 행세하고 거품이 들끓는 실상이다.

문화는 아직도 장식품이거나 치장물일 뿐이다.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문화물류의 전과정이 상업성에 오염돼 찰나적이고 표피적인 문화가 번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대중과 산업자본이 문화권력을 장악하면서 '기계와 소음과 속도의 문화' 가 양산되고 있다.

또 각종 공연은? 집안잔치나 다름없다. 초대손님 일색인 관객을 모아 너도나도 제돈들여 귀국공연을 한다.

저마다 '솔리스트' 를 지향하는 문화풍토 때문에

'양상블정신' 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예술교육자도 자라지 못한다.

외국 유명단체 모셔오기 개런티 경쟁으로 한국의 공연시장은 속된 말로 붐이 났다.

문학은 해마다 노벨문학상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세계에 내놓을 작품이 있는가? 있다해도 제대로 번역되었는가? 2백개도 넘는 문학상은 과연 문학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베스트셀러는? 광고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조작된다.

기획력 부재의 주먹구구식 출판이 주류를 이루고 1년동안 한권도 책을 내지 않은 출판사가 75%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형상 세계 10위권의 출판대국이다.

미술은? 1백여개 대학에서 해마다 7천여명의 미술전공자가 배출되지만 예술행정이나 이론전공자는 거의 없다.

대다수가 1~2번 개인전을 연 뒤 작가활동을 마감한다.

작품값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국내작가와와 작품가격차가 커 국내활동을 꺼린다.

비평은? 자기그룹·자기사람 키우고 두둔하는 이른바 '주례사 비평' 이 득세하면서 온당하고 매운 비평이 사라져 간다. 상업성의 잣대가 곧 진실이다.

이 시대의 문화는 예술로서의 성공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희망한다.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내실없는 예술은 두가지의 성취를 위해 껍데기를 포장하고 실체를 흐리기 위해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해마다 문화예술의 해를 운영해왔다.

'91 연극·영화의 해, '92 춤의 해, '93 책의 해, '94 국악의 해, '95 미술의 해, '96 문학의 해, '97 문화유산의 해, '98 사진영상의 해, '99 건축문화의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임은 물론,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다지는 21세기 첫 지구촌의 축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은 '문화월드컵'이어야 한다. 5천년을 면면이 이어온 우리의 자랑스런 고유문화를 세계만방에 또한번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화 월드컵'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문화 복지실현을 앞당기는 촉매로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희망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해에 이어 지난해는 2000 새로운 예술의 해이며, 올해는 2001 지역문화의 해이다.

매년 갖가지 사업이 벌어졌으나 '이벤트 위주의 전시성 행사'로는 진정한 문화인이나 성숙한 문화국민이 되게는 할 수 없다.

진실과 진정성이 몰각된 오락으로서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개방적 담론을 내세워 이제부터 할 일은 '姓' 뿐이라는 것처럼 '姓'에 줄을 댄 문화가 판을 친다.

상업성에 기대거나 '姓'을 매개삼아 벌이는 한편의 일회성 잔치... 이것이 우리문화의 내실없는 얼굴이다.

필자는 고 백범 김 구 선생께서 망명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시절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독립된 국가와 국민보다 문화국가와 문화국민이 되는 것을 생애를 통해 꼭 이루고 죽었으면 한이 없다고 설파하신 갈망의 참뜻을 깊이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신동엽시인은 이미 지난 60년대에 "깎뎠기는 가라, 한라부터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기슭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고 외쳤다.

이제 우리는 문화에 대해 '깎뎠기문화는 가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설령 그것이 즉효없는 주문(呪文)이라 할지라도, 구호로서의 문화, 장식품으로서의 문화는 가라...

우리는 또 한번 기회와 희망은 있다.

21세기의 2천년대 초기에 대망이 이뤄질 기회는

지난 96년에 우리가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따낸 '2002년의 월드컵'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유치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88 서울 올림픽에 이어 새로운 국운상승의 전기를 우리에게 두 번째 하늘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임은 물론,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다지는 21세기 첫 지구촌의 축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은 '문화월드컵'이어야 한다. 5천년을 면면이 이어온 우리의 자랑스런 고유문화를 세계만방에 또한번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화 월드컵'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문화 복지실현을 앞당기는 촉매로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희망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게됨에 따라 우리는 과거치욕의 역사를 교훈삼아 역사와 문화의식에서 일본에 앞서지 못하고 뒤쳐지고 만다면...

또 한번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창조'는 뒤졌지만 '현재와 미래의 역사창조'는 앞서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신바람나는 정신문화를 창출하자고 필자는 제의하고 싶다. **문**

## 국문학의 올라 날을 세운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1891~1968)는 국문학자 또는 시조시인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지칭만으

로는 무엇인가 아쉽다는 생각이다. 물론 가람은 우리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에 올라 날을 챙겨 세운 학자요, 쇠퇴 일로에 있던 우리 시조시를 부흥·발전시킨 시인이었다. 이 두 가지 면에서의 업적만으로도 가람은 우리 문학과 더불어 길이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자·시인의 지칭만으로 아쉽다는 것은 워낙 가람에게 독보적인 분야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자·한글운동가·애란가·애주가로서의 가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다.

가람은 16세까지 고향 사숙(私塾)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결혼까지 한 후, 학교 공부를 생각해 전주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학했고, 서울의 관립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할 때의 나이는 20세였다. 가람의 학력은 이것이 전부였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사범학교 재학 중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조선어강습원'에 나가 주시경의 조선어 강의를 청강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가람은 거의 독학으로 국문학 연구와 시조시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했던 것이다.

가람의 좌우명은 '후회를 하지 말고 실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가람이 50여년간 꾸준히 《일기》를 쓴 것도, 78세 생애에 언제나 땀땀해 흠결을 남기지 않은 것도 이 좌우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시대에 있어서의 가람의 행적을 보아서도 그렇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고, 이른바 '창씨개명'에도 응하지 않았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의하면 가람은 일제시대에 쓴 '시와

수필의 어느 한 편에서도 친일문장을 남기지 않은 영광된 얼굴'이라고 했다.

일찍이 맹자는 백세지사(百世之師)를 말한 바 있다. 백대의 후세까지도 사표가 될 사람을 일컬음이다. 이러한 사람의 학풍이나 풍도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을 본떠 분발하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가람 이병기의 한 생을 살피는 동안 줄곧 따라온 낱말의 하나가 바로 이 '백세지사(百世之師)'였다. 올해는 가람의 탄생 110주년이자 가람의 서거 33주년이 되는 해로

서 21세기에도 가람은 겨

레의 스승으로 우

러움을 받아 마

땅하다. 



# 높은 참여율... 진지한 자세로 토론벌여

##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지방이양’ 반대 결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도

류장수 편집주간

2001년 전국문화원장연수회가 지난 5월 23~24일 이틀동안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170명의 문화원장이 참가한 이번 연수회는 지난 한해를 거르고 2년만에 개최되었는데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째 여느해 연수보다 참가율이 높았으며 둘째 연합회 강사진 선정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특강을 맡은 분들이 모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원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長)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의 내용도 시의적절하고 지방문화원에서 필요한 지식이었다는 반응이었다.

### 개회식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안진수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이수홍회장은 개회

사에서 “최근 우리사회에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는데 그 저변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의 허약이 한몫하고 있다. 여기 모인 문화원장님들은 지역 현장에서 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할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이고 내년은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연수에 참가한 전국 문화원장들이 질의·토론을 벌이고 있다.

가 기다리고 있고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도 마련돼 있다. 이같은 국내외 중요 행사를 원만히 치르고 우리문화를 외국에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모두가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바쁜 일정때문에 대신 참석한 윤형규 문화관광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보급에 헌신하는 문화원장님들은 문화메신저다. 지역문화는 그 나라 문화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또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문화 창달을 강조하셨고 문화부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원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좋은 정보와 지혜를 교환하여 문화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특별히 참석하여 축사를 한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은 문화원과 국사편찬위원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문화는 세계화 추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때일수록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것을 가지고 세계화 해야 한다. 잘못하면 외국의 문화에 예속되어 식민지시대와 같은 처지를 당한다.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이것은 강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제국주의적 패권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규탄받아 마땅하고 또 강력히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도 반성할게 많다. 그동안 국사과목을 소홀히 하여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자리가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첫날 특강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 “강의라기보다



이 시간은 문화예술을 화두로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 강의 제목이 ‘한국지역 문화의 창조’인데 지금은 중앙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아 이제 중앙보다 지방이 각광받는 시대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도 지역의 중심이다. 과거 고정관념은 타파해야 한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보다는 어느 지역이 특색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으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세계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조의 거점이고 문화발전의 교두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과거 드골정부시대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유능한 문화장관이 있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 ‘문화의 집’ 제도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였다. 문화의 중앙집중을 막고 지역문화를 창조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세계화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것이 없는 세계화는 외국의 선진문화에 예속을 뜻한다. 또 같은 나라안에서도 잘하는 지역을 흉내내서는 자기지역의 특성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문화적 행위다. 문화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야 한다. 전통의 보존도 미래를 창조하는데 바탕을 뒤야 한다”

**최천식 문화관광부전통지역문화과장** : 문화부의 올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국민 모두가 참여

하고 누리는 문화로 '삶의 질' 향상 ②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 ③ 문화·관광·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평화협력 실현에 두고 있다. 또 위 3대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문화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창조력 신장으로 문화예술 진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을 위한 지식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등 네가지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에 들어가서는 부산 남종섭 연세문화원장이 “문화원사를 신축하려고 해도 대지확보가 어려운데 그린벨트내에도 문화원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고 김진옥 부산기장문화원장은 “우리끼리 아무리 토론해 봐야 지방단체장이 문화를 홀대하면 헛일이니 전국의 기초단체장을 모아 놓고 문화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김현구 서산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고쳐 문화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화부가 이를 막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천식 과장은 “문화원 신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동의를 받아 중앙에 올려야 가능하고 지자체장



△ 최천식문화관광부전통지역문화과장

교육은 행자부 소관이며 문화원 사무권한 이양문제는 문화부도 반대 논리를 개발중이니 문화원들도 지혜를 제공해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위로공연

첫날 강의를 끝나고 오후 5시부터 위로공연이 있었다. 이날 위로공연은 어린이 노래그룹 '작은평화'의 동요메들리, 강남문화원 주부극단의 단막극 배

비장전, 광진문화원 라틴댄스팀(문화학교연수생)의 라틴댄스 공연순으로 진행되었다.



△ 강남문화원 주부연극반의 '배비장전' 공연모습

### 둘째날 특강

**이상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 “향토문화는 전통



문화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합쳐진 것이 향토문화다. 그런데 이 향토문화가 산업화, 세계화 바람을 타고 지방의 특색이 희석

되고 획일화·동질화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이같은 현상을 막고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내 세계속의 우리문화로 창출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통신을 통해서 밀려드는 외래문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것들을 받아들여 좋은 것을 우리 고유문화에 접목시켜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한다. 앞으로는 관광산업도 문화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중한 '2001,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장** :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서울(중앙) 집중을 지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서울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인구비례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뿐이다. 서울 동숭동에는 50개 소극장이 모여 있지만 객석이 찬곳은 1~2개 뿐이고 10명미만, 그것도 출연자의 친지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곳도 많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수요자가 없는 문화예술은 없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감소되는 관객은 그냥 놔두서는 회복이 안된다. 강제로라도 감상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프랑스는 의무적으로 문화향수기회를 갖게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학점을 주듯이 연극을 보고 미술전시회를 다녀오면 일정한 학점을 준다. 문화원은 문화향수 저변확대에 필요한 네트



△ 이중환 '2001,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장

**허백영 의령문화원장 사례발표** : 허백영원장은



△ 허백영 의령문화원 원장

원장으로 취임한 지는 일천하지만 지역 향토문화발굴에는 열정적으로 일한 향토사학자다. 허원장은 군내 264개 마을을 3회이상 답사하여 땅이름을 밝혀내 책으로 펴낸 경험담을 소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령에는 군립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의 민

속·고고학자료 670점이 허원장이 찾아낸 것이라고 했다. 허원장은 잊혀진 고장의 인물도 발굴(신성모·임사홍 등)했고 군내 금석문을 조사 번역한 '충효열록'도 발간했다. 잘못된 지명도 바로잡았다. 이 같은 그의 업적은 모두 책으로 발간됐다.

**유재용 송파문화원장 사례발표** : 송파문화원 문화



△ 유재용 송파문화원장원장

학교 성공사례다. 송파구는 68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문화학교 운영비로 월평균 5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좋은 환경을

가진 셈이다. 특히 여가시간이 많아진 주부들이 문화학교를 많이 찾는다. 현재 30여과목이 교육되고 있다. 컴퓨터교실은 컴퓨터 구입비 1억여원 확보가 어려워 컴퓨터학원과 계약해 일반포교육자 보다 싸게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 연간 1천만원정도는 문화원 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다. 지금은 경쟁시대다. 문화원 말고도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질로 승부해야 한다 교육내용이 좋고 재미있으며 강사진이 실력자라야 한다. 이것이 성공비결이다.

###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지방이양 반대결의

23일 첫날 연수일정이 끝나고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지방이양 반대결의문' 과 정연구 동래 문화원장이 긴급동의로 제안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 초안을 만들도록 위임함에 따라 결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문'은 국가적 일이므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이수홍전국문화원연합회장과 안진수 사무총

장·권용태 서울시지회장·양중해 제주도지회장이 초안을 작성, 전국문화원장에게 전송하여 추인을 받아 제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결의문 내용중 좋은 문구를 따서 현수막을 만들어 문화원건물에 내걸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연수회가 끝난 후 결의문을 만들었다.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지방이양 반대결의문'은 이날 작성되어 연수일정 마지막 시간에 김현구 서산문화원장이 낭독하고 전국문화원장이 기립하여 '반대한다'를 세번 외쳤으며 문화관광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제출기로 했다. (두 결의문 별항 참조)



△ 전국문화원장들이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이양반대 결의를 하고 있다.

### 권노갑고문주관 오찬

둘째날 문화원장연수가 모두 끝난후 대미를 장식한 것이 권노갑 전국문화원연합회 고문 주관 오찬이었다. 권고문은 개회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나오지 못하자 마지막 날 오찬을 베풀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국 170여 문화원장이 박수로 환영하는 가운데 이수홍 회장의 안내로 입장한 권노갑 고문은 문화원장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악수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오찬이 시작되기전 이수홍회장은 "연수를 마감하는 오늘 가족적 분위기에서 권노갑 고문이 오찬을 마련하셨다. 권고문은 211개 지방문화원 고문

이기도 하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상대를 먼저 돕는 것이 정도다. 여러분들도 권고문님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곧 이어 권노갑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저는 3년전 전국문화원연합회 고문직을 맡아오는 동안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 이수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들은 생업에 바쁜 가운데서도 무보수로 묵묵히 지역의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거의 모든 문화원들이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문화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열어나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대중대통령께서 열어놓으신 통일가교를 통해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 지난 50여년동안 이질화된 남북한의 문화가 하루속히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지붕 밑에 있는 사람이다. 미력하나마 여러분의 노력에 동참하고 함께 고민할 생각이오니 기탄없이 논의해 주면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문**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오찬장에서 권노갑 본회 고문에게 지방문화원 사무권한이양 반대결의문을 건네고 있다.

##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지방이양 반대 결의문

정부가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복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양추진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소속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국문화원장 결의에 의하여 반대한다.

첫째, '98. 9. 15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이 행자부 요청으로 입법 예고되었을 때 법제처 견해로 "이양"이 아닌 "권한" 위임"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문화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데도 다시 권한을 이양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역사와 사업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법개정의 실익도 없다.

둘째, 지방문화원 사무권한이 시·도 자치단체에 현재 위임된 상태에서도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간섭으로 문화원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항차 사무권한의 시·도 이양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적인 간섭으로 문화사업의 본질이 굴절될 것이 우려되며, 문화사업비 지원이 더욱 인색할 것이고 문화입국의 꿈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사업만을 지방문화원에다 위탁 집행하게 되면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문화원에 집중되어 문화전문단체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넷째, 민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감독권을 주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경솔히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바 아직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섯째, 지방문화는 민족문화의 바탕이며 21세기 국가문화경쟁력의 원동력인 바 전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법규 유지가 지방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1. 5. 24

전국문화원장 일동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

1.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부 일본 인사들과 일본 정부의 비양심적인 역사관을 경고하며, 또 이 문제의 밑바닥에 일본제무장과 제국주의가 싹트고 있음을 경계한다.
1. 우리 문화원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반대세력이 있으므로 그들과 협력하고 국제적인 양심세력에 호소하여 일본역사교과서 재수정과 장래 다가올 위기의 본질을 사전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대중 문화개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차체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학교교육에 국사교육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1. 전국문화원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원 문화학교 교육에 일본교과서 왜곡의 부당성과 국민역사바로알기 강의를 중점 실시한다.

2001. 5. 24

전국문화원장 일동

**전**국 문화원 간사 연수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동안 1백50여명의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문화원 간사 연수회는 이해준 공주대교수·허주열 한국통신연수원 인터넷과장을 비롯한 문화·정보전산화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석한 가운데 이론과 실무를 겸한 문화와 정보화 교육이 이뤄져 간사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린 체육·문화계 오찬 모임에서도 김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과 관련 ‘경기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손님에게 문화적인 감동을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문화원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한 후 “이번 연수가 여러분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서로간의 친목과 토론을 통해 다른 지방문화원 사정도 배우고 친화하는 기회가 되어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남북 화합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연수가 학습에 치우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이 미안하다”며 “내년부터는 1박2일의 일정을 2박3일로 늘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흥선기 시장은 김석기 문화체육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문화원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문화원 업무에 접목

**행사** 제2차 전국 문화원 간사 연수회

## 현장감 넘친 문화·정보화 교육으로 큰 호응 얻어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대전서구문화원 이현영 간사가 전국문화원간사를 대표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하고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문화원이 정보화시대·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의 요람으로 거듭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류해상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문화원 간사들이 우리 고장 대전에서 연수를 하게 돼 기쁘다”며 “아무쪼록 1박2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문화원 간사를 대표해 대전서구문화원 이현영 간사가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앞에서 선서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개회식이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연수회는 첫날 이해준 공주대 교수·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고은실 제2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문화원 간사들

의전국 전문위원·박재순 한국통신망연구소 연구원의 강연에 이어 밤 7시부터 9시까지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튿날인 28일에는 한국통신연수원 허주열 인터넷 과장을 비롯한 김찬옥·김순영·박재순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온 가운데 문화원 간사들이 4개반으로 분반해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

## ‘시민속의 문화원’으로...문화원간 정보교류도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문화는 생활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도시화를 의미하는 문명과는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간접 자본이 필요하지,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문화가 뭐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관광으로 이어지면 돈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문화가 잘 되어 유인효과가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주부·청소년의 탈선이 사라진다면 그것도 생산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 사업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것이라야 한다는게 중요하다. 당연히 문화원은 시민속의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문화원을 모를 뿐더러 발전

도 기대할 수 없다. 문화원간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 상생(win-win)의 게임을 실현해야 한다. 문화원이 발전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느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잘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



최천식 문화관광부 > 전통지역문화과장

안 정보전산화 이해와 응용 실습이란 주제아래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회 개회식에서는 첫날인 27일 대전 서구 신라장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전국문화원연합회 2001년 제2차 이사회 참석차 대전을 방문한 전국의 문화원장들도 자리를 같이해 간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원장은 최병홀 관악문화원장·고경재 양양문화원장·김수진 군위문화원장·권용태 강남문화원장·김동순 인천 중구문화원장·장수봉 충주문화원장·김현구 서산 문화원장·장영 조치원문화원장·김병학 김제문화원장·이인호 익산문화원장·오용갑 목포문화원장·조남식 영광문화원장·김희규 영암문화원장·이원희 경산문화원장·김인한 안동문화원장·허중

성 마산문화원장·김상수 함양문화원장·오필근 사천문화원장·박준영 나주문화원장·천광인 화성 문화원장·류해상 대전대덕문화원장·황충민 대전 중구문화원장·김진원 대전 서구문화원장·박효근 전국문화원연합회충북지회장 등이다.



△친교의 밤

## 지역문화는 ‘날좀 봐요!’ 라고 외치는 격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얘기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참석한 문화원 간사들은 각 지역의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다. 누군가 “문화가 돈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된다니까”라고 악을 쓰며 대꾸할 정도는 돼야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다. ‘나주 배’ 하면 ‘나주’라는 지역이 따라

붙는다. 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를 되살려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 하는 게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지역문화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채 ‘날좀 봐요!’ 라고 외치는 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원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활용해 차별성과 우위권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 향토문화 수용자층이 인터넷 세대로 바뀌는 흐름에 발맞춰 문화를 정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원은 또 사회교육과 대중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화원은 지역문화 연구의 중심이면서 활성화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 문화의 큰 흐름을 관조하고 종합해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 “간사들도 문화행정가로 거듭 나아”

고은실 제2의건국 전문위원

펄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을 한바가지 부어야 한다. 지방문화도 마찬가지다. 지방문화가 활성화되고 안되고는 문화원 종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치단체장이 어떤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방 문화 육성은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찾는 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이덴티티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처한 조건만을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풍물교실·노래방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 능

력도 함양해야 한다. 문화원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조직가로서의 마인드도 가져야 한다. 문화행정도 중요하다. 축제 규모·지자체 예산등을 꿰뚫어 파악하는 등 문화 행정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은실 제2의건국  
전문위원 ▷



## “향토문화도 정보화하면 돈 된다”

박재순 한국통신망연구소 연구원

인터넷 점유시간 대비 효율성이 적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량은 8개월 단위로 배증하는데 정작 쓸만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 하더라도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다시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고부가가치 정보는 없는 현실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향토문화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파일로 띄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돈이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미디어 중에서 인터넷처럼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진 것도 없다. 인터넷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우선 비용과 효과를 상호 비교검토하고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전개해나갈지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 또는 부서가 최적

화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로 지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공공기관·지역기업·지역단체·지역주민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트 구축시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 코너를 신설함으로써 단조로운 극복하는 것도 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박재순 한국통신망  
연구소 연구원 ▷



경기도지회(지회장 송승영)는 지난 5월 11일 문화가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향토문화유적답사를 개최했다.

매년 경기도내 1개 시·군을 정해 답사해 오고 있는 이 행사의 올해 답사지는 김포시로 사적 제 202호인 장릉을 시작으로 우저서원·교육박물관·덕포진·문수산성·애기봉 등을 방문했다.

김포시 도로변에 있는 장릉(章陵)은 조선조 제16대 임금인 인조대왕의 부왕인 원종대왕과 인현왕후 구씨의 능으로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 우저서원(牛渚書院)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로 선조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인조 26년에 창건됐다. 덕포진은 사적 제292호로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군사적 요지로 임진왜란과 구한말인 1866년 병인양요·1871년 신미양요때 외세와 정면으로 격전을 벌이던 곳이다. 이곳에는 당시 상황이 재현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자녀들에게 역사교육을 겸한 여행지로도 권할만 하다.

답사단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부부가 운영하는 교육박물관을 비롯 숙종 20년 강화도 수비를 위해 축조된 문수산성과 기생애기(愛妓)와 평양감사의 사랑이 어려있는 애기봉 등을 둘러봤다.

행사를 마치고 답사단은 평가회를 통해 김포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우저서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문화가족들

## 행사

경기도 지회 제7회 향토문화유적답사

# 문화가족 3백여명 김포문화유적 돌아박

편집부



△송승영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문화가족 3백여명이 임진왜란과 구한말의 격전지인 덕포진을 따라 걷고 있다.



신륵사경내에 세워진 다층 전탑.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이라 옛부터 신륵사를 가리켜 '벽절'이라 불리기도 했다. 탑의 조성 연대는 신라시대 혹은 고려시대로 추정되지만 문양으로 보아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 박수찬〉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23 여주문화원

# “신뢰가 문화원 이끄는 동력” 임원회비 1백% 완납...분원제도 통해 향토사로 발걸 조사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 한만규 여주문학원장 인터뷰

**생** 활도자기·명성황후 생가·세종대왕릉. 이것 말고도 여주는 국보4호인 고달사지 부도나 신륵사·효종대왕릉·목이불교박물관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 여주에서 지역문화 센터 구실을 하고 있는 여주문학원은 1970년 4월 27일 설립된 이래 총 3백65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고문 12명에 자문위원 9명·임원 30명·일반 회원 3백14명. 올해 문화사업 예산만도 축제사업·

향토문화고유사업·지역사회교육사업·도서발간사업등으로 약 1억2천만원에 이른다. 여주문학원은 특히 분원제도를 통해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개 읍·면에 모두 분원을 두고 있는 것.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벌일 여주군사 편찬에도 분원장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들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한만규 여주문학원장(64)은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원장은 “지난해 문화원 설립이래 처음으로 임원들이 1백% 회비를 완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한다. 어느 문화원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운영비 역시 어려움을 한고비 넘기게 됐다고 말한다. 그 노하우를 물어보니 ‘신뢰’라고 한 단어로 압축해 답했다.

문화원과 회원간에 믿음이 형성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주의 문화예술을 문화원에 맡기게 된다는 것. 한 원장은 공무원 출신이다. 만 35년 동안 여주군 공보실장·재무과장·사회과장·농산과장·기획실장·사회진흥과장·여주읍장등 공직생활을 하다 99년 3월 18일 제9대 여주문학원장으로 문화원과 인연을 맺었다. 한만규 여주문학원장을 만나봤다.

여주문학원은 지난 70년 설립돼 만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만규 여주문학원장

“무엇보다 향토문화의 발굴 및 계승사업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본두리 조기울 낙화놀이 · 원부리 얼담고놀이 · 마래리 거북놀이 ·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등 그동안 맥이 끊겼던 전통놀이를 발굴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는 지난 87년 제2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주가 전통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었던 만큼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과 그밖의 문헌 속에 나타나 있는 여주의 모습을 수집해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주문화원은 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문화원은 1994년부터 여주군내 9개면에 분원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 분원은 분원장을 포함 30명 안팎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원제도를 통해 점동면 분원과 가남면 분원은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와 조기울 낙화놀이를 각각 시연 했는가 하면 금사면 분원은 금사면지 · 상호리지 발간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원을 통해 각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본원의 문화사업을 조직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은?

“문화원장이 저로서는 내고향 여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 여겨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터라 우리 문화원과 여주군 · 여주군의회와의 관계도 매우 돈독한 편입니다. 지난해 4월 18일 10억원 규모의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및 운영조례가 별 무리 없이 제정된 것도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 문화유적답사



△ 정월대보름 행사



△ 세종문화큰잔치 백일장 대회

보입니다. 힘든 일을 들라면 역시 문화원의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여주문화원은 특정인 몇사람의 지원에 기대어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문화원 행사에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여주의 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원이 회원들의 대·소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여주문학원 유사이래 처음으로 임원 회비가 1백% 완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일반회원들도 1백% 회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회비 1백% 완납은 어려운 일인데 노후우라도 있다면?

“문화원이 회원이나 임원들이 내는 회비를 알뜰하고 정성스럽게 잘 쓰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형성되면 여주의 문화예술을 문화원에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연히 참여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회비등이 늘어나 문화원 직원 월급주는 것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저는 문화원과 회원들간의 신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 문화원을 이끄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여주에는 아직 지역향토사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향토사학자와 여주대학 및 여주군내 중·고등학교 역사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 향토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명유래집·금사면지·‘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등이 그것입니다. 또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조기울 낙화놀이등을 문화원과 해당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문학원은 군민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문학원

사 건립은?

“여주군민회관이 20여년 가까이 되어 노후할 뿐만 아니라 지하2층 지상1층으로 협소해 문화학교 강좌 개설을 위한 공간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도 모자라 11만명의 군민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구요. 이에 따라 문화원사 건립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여주를 전국 제1의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여주군의 의지가 확고하고 군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문화원사 건립을 통한 여주문학원의 위상을 바로 세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문화원사 건립 추진위를 올해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원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여주문학원만의 단독 원사가 아닌 타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도 함께 입주해 있는 다목적 문화예술 건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원장은 “이미 5년전 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무렵 지하2층 지상7층짜리 다목적 종합회관 건설을 추진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방대해 중간에 보류됐다”며 아쉬어했다.

한 원장은 매년 10월 9일을 전후해 열리는 세종문화관잔치의 올해 행사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주·이천·광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넘으로써 문화예술의 고장 여주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원장은 “이른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문화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화원이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에 열정을 가진 문화전문가들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제반 여건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도자기 엑스포 · ‘세종’ 연계할터”

## ‘문예진흥기금’ 조례 제정…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에 초점

### 박용국 여주군수 인터뷰

여주군은 지난해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박용국 여주군수(61)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비전이 숨어 있다.

농사꾼 출신으로 1년간 인분차를 끌었다는 박군수는 여주가 농로포장을 전국 1위라는 얘기를 비롯해 고달사지부도·여주쌀·여주도자기·세종대왕릉 등 여주가 지니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21세기는 관광시대”라고 힘주어 말하는 박군수는 “우리 여주는 문화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주(州)가 들어간 곳이 원주·광주·양

주·전주·충주·경주·제주 등 모두 20 곳인데 여주만이 시로 승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사변 이후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나 팔당댐 상수도보호권에 속해 집 하나 공장 하나 마음대로 못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보4호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 문화재가 65점, 목아불교박물관·여성박물관 등 박물관이 10곳 있을 만큼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박군수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8차선 길이 놓이게 되면 서울서 여주까지가 40분 거리, 대구서 여주까지가 2시간 거리로 줄어들게 된다”며 “외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재 등 문화관광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 자손들이 오랫동안 영구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눈 앞으로 다가온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올해로 33주년을 맞는 세종문화축제와 연계해 ‘세종가요경연대회’ ‘훈민정음반포식’ 등을 다채롭게 열어 세계인들에게 여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야심을 보였다. 그러나 박군수는 “관광산업은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2020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 모든 계획을 짜나가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문화군수’ 박용국군수를 만나봤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21세기 여주는?

옛부터 농업이 발달해 풍요롭던 여주는 늘어나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생기면서 공장·산업시설 설립 등 산업화 부분에서



박용국 여주군수

많은 제약을 받아 지역경제가 한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덕택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민·관이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와 어려웠던 지역경제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을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주군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올해 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군은 1차적으로 5억원을 조성한 다음 향후 10억원까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를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축제행사, 문화예술 관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21세기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의 고장으로 소문나 있는데 ...

우리군은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등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양로나 질로나 여주를 능가하는 시·군은 전국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자긍심 또한 대단합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영릉과 아름다운 남한강변에 위치한 천녀고찰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점동면 혼암리 선사유적지, 매룡리 삼국시대 고분군, 파사성, 고달사지등 중요한 문화유적

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주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도 우리 여주가 자랑할 만한 무형의 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 주신 자연 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과 청정한 공기는 여주의 자랑입니다.

지금 지자체들간에 문화관광상품화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주는 어떤지요?

문화와 경제는 모두가 이야기하듯 선후의 관계로 따질것이 아니라 상생의 논리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을 일차적인 관광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만드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많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사면의 상호리와 주록리 민박마을은 이같은 여주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문화체험을 곁들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는 도자기 축제로 유명한데 2001 도자기 엑스포는 어떻게 연대에 나가고 있는지요?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 경기도'가 한국 도자 문화의 전통과 혼이 살아 숨쉬는 여주·이천·광주에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군민홍보위원 위촉식과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자기엑스포 붐을 조성하고 세계속에 여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저명인사들을 명예 홍보사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세종문화 큰잔치를 더욱 활성화해 문화의 고장에 어울리는 엑스포로 이미지화 한다는 계획아래 세종대왕 즉위식과 한글 반포식등의 문화행사와 제1회 세종 전국 국악경연 대회등의 군민 한마당 행사, 제1회 여주 세종대왕 하프마라톤등의 체육행사, '흙 그리고 화합2001' 미술작품전등의 전시회등을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문화축제로 꾸밀 계획입니다.

여주는 옛부터 쌀 주산지로 임금께 진상하던 자체쌀로 유명한데...

“여주는 흙이 마사토로 쌀 뿐만이 아니라 고구마·땅콩·참외, 심지어 무·배추도 다른 지방에선

못따라올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박군수는 책장에 올려져 있던 비닐봉지를 꺼내왔다) 이것 보세요. 이것이 98년 11월1일에 담아놓은건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자기 흙도 본래는 여주 흙입니다. 도자기도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갖기위해 ‘그린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예요. 이를테면 세제를 안 써도 닦이는 그릇 같은 것 말이죠”

1, 2기 민선 군수로 당선된 군수님이 남은 임기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중앙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군의 나갈 방향은 문화·관광개발 계획외에도 시승격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통합 상수도 시설과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등 공중위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전 국토를 잇는 최고의 교통요충지로 현재 고속국도·국도·지방도·군도등 총4백59km가 포장되어 있지만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 추가로 고속국도(여주~구미, 2003년 완공예정)와 국도 우회화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고, 분당에서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이어질 전철(2011년 개통목표)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신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을 유치해 다양한 산업도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여주는 민족의 젖줄인 남한강을 중심으로 푸른산과 넓은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아름다운 고장으로 수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상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두루 갖춘 21세기 중부지방의 중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도자기 만들기 체험장면



△ 여주쌀 축제장면



△ 민박마을 '농사체험' 장면



1 2



3



4



5



6

7



## 사민으로 보는 여주의 문화

- ① 영릉전경 ② 영릉 ③ 고달사 지무도 ④ 인간문화재 목아 박찬수 관장 ⑤ 명성황후 생가전경 ⑥ 명성왕후 향천봉헌례 ⑦ 명성왕후 생가

〈사진: 박수찬〉

# 문화인물로 선정된 애국선열

정리 : 류장수 편집주간



**6월** 은 '보훈의 달' 이고 6일인 '현충일' 이다. 정부가 이렇게 정한 것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선열과 6·25전쟁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보면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월간 '우리문화' 는 '보훈의 달' 을 맞아 일제하 애국선열 중 문화부에 의해 '문화인물' 로 선정된 분들의 공적을 재조명 해본다. (편집자 주)

## 백범 김 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김순영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듬해 안악에서 일본군 중위를 만나자 격분을 참지 못해 그를 살해하고 체포되어 구속돼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광무황제의 특명으로 생명을 건졌다.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결사조직인 신한회에 가입 활동하였고 1919년 3·1 만세 시위사건에 가담한 뒤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국무총리 대리, 임정(臨政) 원수(元首)인 국무령, 주석을 역임하며 조국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이봉창을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 황제를 저격케 했으나 실패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윤봉길로 하여금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식에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군 장성을 사상케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김구 선생은 이동녕·이시영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만들어 민족진영의 단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1940년에는 중국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식을 거행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기강으로 율건 뒤 5월 전당대회를 개최, 각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집행위원장에 취임하였다.

1942년에는 임시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에 광복군에 대한 정식협정을 체결 공포함으로써 대일항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연

### 臨政 국무령·주석 지내며 조국광복에 헌신

합군과 함께 중국 각지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1944년 4월에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주석(主席)으로 임명되었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국무위원 일동과 함께 한국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서 결의된 신탁통치에 대한 반탁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1946년 2월에는 비상국민회의가 조직되어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1947년 1월 비상국민회의가 국민회의로 개편되어 부주석에 취임하였으며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반탁투쟁위원회의 활동을 이승만박사와 함께 추진하였고 그 해 11월에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또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차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구 선생은 젊은 시절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선봉에서 활약하다 중국으로 망명해서는 임시정부를 이끌며 계속 조국광복에 헌신하였고 광복후에도 조국의 통일정부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1949년 6월 26일 서대문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62년 최고 명예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백야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白冶 金佐鎭 : 1889~1930), 장군의 고향은 충남 홍성으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일을 해 이웃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불과 17세에 자기 집의 노비들을 해방 시키고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80칸이나 되는 자기 집을 학교 교사로 내어주고 자기는 초가집으로 나가 살기도 했다. 현재 김좌진 장군의 집터는 홍성의 갈산(葛山)고등학교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김좌진 장군 자신은 나이 불과 19세에 '한성신보'라는 신문사의 이사가 되었고 오성학교 교감이 되었다. 그리고 신민회, 기호흥학회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애국 교육운동에 나섰다. 만일 1910년의 망국이 없었다면 김좌진은 장군이 안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김좌진은 나라를 구하는 길은 무력(武力)이라고 판단하고 북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무관학교를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군자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일본경찰에 잡혀 서대문 감옥에서 2년 6개월(1911~1913)의 옥살이를 하여야만 했다. 이때 장군은 사내 대장부에게 있어 실패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나이가 실수하면 용납하기 어렵고 지사(志士)가 살려고 하면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좌진은 이 같은

### 청산리 전투서 명성떨친 독립군 사령관

시를 짓고 뜻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비밀결사 대한광복단에 가입하여 북간도로 건너 간 것이다.

1918년 12월 '대한독립선언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군정부(軍政府)의 북로사령부 제2연대장이 되었다. 마침내 장군은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필생의 숙원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동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군정부라는 이름을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로 바꾸어 총사령관이 되고 임시정부가 지원해 준 돈 1만원으로 사관양성소를 설립, 스스로 교장이 되었다.

1920년 9월 제1회 졸업생 298명을 배출하고 이어 일본침략군과 청산리에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때 홍범도 장군과 연합하여 일본군 1,200여명을 사살하였으니 세계 전쟁사상 유례없는 대전과를 올렸다.

김좌진 장군은 또 옛날 우리의 발해 수도였던 영고탑(발해진)에서 신민부(新民主府)라는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새로이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세웠다. 장군은 칠전팔기, 쓰러지면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는 교포사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한족총연합회(漢族總聯合會) 주석(主席)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 1월 24일 박상실(朴尙實)이란 자가 쓴 흉탄에 맞아 쓰러졌다. 향년 41세.

# 안중근 의사

## 한국침략의 역권약탈의 「이등박문」의 영웅

안중근 의사는 망국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자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09년 한국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의 파괴자인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정의와 인도의 이름으로 응징한 독립운동가이다.

문화부는 지난 1993년 그를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헌신적인 생애와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안의사의 나라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을 두고두고 우리민족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서울 중구 남산공원 광장에는 그의 동상과 함께 기념관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아명은 응칠(應七), 본관은 순흥이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음력 7월 16일) 황해도 해주 광석동에서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씨(趙氏)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95년 17세 때 천주교인이 되어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외국신부와 접촉을 통해 선진문물과 지식을 많이 터득하게 되었다.

1906년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평안남도 진만포에 삼흥학교(三興學校)와 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민족교육에도 헌신하였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압으로 체결한 후 다시 한국을 합병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시켰으며 이에 대항하여

애국지사들은 의명을 일으켜 항일(抗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중근은 국내에서의 의병투쟁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1907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범윤(李範允), 김두성(金斗星) 등과 함께 의병을 양성하여 참모총장 겸 특과독립대장으로 의병을 이끌고 일제와 싸웠다. 이때 안의사는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나라없는 민족은 없다고 부르짖어 동포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일제의 강대한 무력 앞에서 항일투쟁은 쉽지 않았다.

1908년 점차 어려워져가는 시국에서 11명의 동지와 단지(斷指)하여 대한독립(大韓獨立)을 혈서하여 한 몸을 조국에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던 중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한국을 합병한 뒤 만주를 손에 넣을 계획으로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와 회담을 갖기 위해 이등박문을 하얼빈으로 파견하게 된다.

안의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동양 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제의 흥계를 세계에 알리고자 이등박문을 하얼빈역에서 포살(砲殺)하였다.

옥중에서 안의사는 자서전과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삼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상을 담은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 서문을 남겼으며,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는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이다. 도산 선생은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평양에서 청일전쟁을 보고 힘의 배양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독립협회 평남지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만민공동회에서 뛰어난 연설로 국민의 자각을 호소하였다.

19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도산선생은 그곳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교민지도에 나서 교민단체 공립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이 되었고 공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동포의 단결과 조직에 총력을 기울였다.

1907년 고국의 실정을 살피기위해 귀국하였으며 양기탁·안태국·이승훈 등과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한 뒤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각 주요도시에 태극서관을 두고 자기회사를 차리는 등 정치·교육·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에는 청년학우회를 창설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안중근 의거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용산헌병대에 수개월간 수감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으로 국내활동이 어렵게 되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도산선생은 1912년 해외의 교민을 결집하여 대한인국민회 중

### 민족계몽·독립운동이끈 민족지도자

양총회를 결성, 초대 중앙총회장으로 선출되어 해외 한국인의 대동단결을 이루었으며 1913년 민족운동의 간부양성을 위한 청소년 훈련단체인 홍사단을 조직하여 무실역행·건전인격·단결훈련·국제개업 등 정신개조를 목표로 한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립신문을 신한민보로 표제를 바꾸어 발행하였다.

그후 도산선생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및 국무총리서리를 역임하면서 임시정부의 체제확립에 힘썼으며 독립신문 발간과 독립운동 방향을 지도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도산선생은 본격적인 반일투쟁을 준비하고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추진하던 중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의 여파로 1932년 체포되어 본국으로 압송되었는데 경성지방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1935년 대전감옥에서 출옥한 도산선생은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지방을 순회하며 계몽강연을 하였다. 그 후 평남 대보산에 은거하여 이상촌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던 중 중병이 들어 보석으로 출옥하였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38년 3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도산선생이 남긴 글로는 '독립운동 6대 방략', '동포에게 고하는 글'이 있다.

# 일석 이희승 선생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선생은 맞춤법, 표준어, 고유어 등의 연구로 우리 말과 글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국어학자이다.

일석선생은 1896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의곡면 포일리(현 의왕시 포일동)에서 이종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3년 사숙(私塾)에 들어가 5년간 한문을 수학하였는데, 이미 어머니로부터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배워 한문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1908년 이정옥(李貞玉)과 결혼한 후 상경하여 관립한성의국어학교(官立漢城外國語學校) 영어부에 입학, 동기생인 신익희, 정구영 등과 교유하였으나 1910년 8월에 경술국치를 당해 한성의국어학교가 폐지되자 3학년 중도에 졸업하고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와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사립 신평학교(新豐學校) 교원, 경성방직주식회사 서기로 근무하다 1923년 경성제일고보에서 시행한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數物科)에 입학했으나 1년만에 자퇴하고 192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부 문과에 입학하여 1927년 수료와 함께 법문학부 조선어학급 문학과에 입학하여 1930년 졸업하였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문학회(朝鮮語文學會) 창립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이화여자전문학교 교

## 국어학자로서 우리말과 글 발전의 큰 공헌

수, 조선어학회 간사를 거쳐 1935년 이학회의 간사장(幹事長)에 피선되었다가 1940년 일본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언어학을 연구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경에게 피검되어 함남 흥원경찰서와 함흥 형무소에서 3년간 투옥되었다가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출옥하여 이해 12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에 취임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동아일보 사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학술원 부회장,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와 교육에 진력하여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에 깊이 관여하여 국어 어문규범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국어사전 편찬에 열정을 쏟아 국민들의 바른 어문생활을 선도한 이희승선생은 1989년 11월 27일 94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 ‘조선어학논고’, ‘조선문학연구론’, ‘국어학개설’ 등이 있다.

일석선생은 8·15후에도 한글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국어국문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으며 문화부는 문화인물로 선정, 그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 가지사업을 전개하였다.

## 담원 정인보 선생

### 일제치하에서 國魂환기운동 전개

담원 정인보선생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생이 18세 되던 1910년 나라가 망했으며 조선왕조 최후의 황제 순종이 승하하자 비문을 쓰게 되었는데 내용이 불온하다는 친일파의 밀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 뒤 선생은 활발하게 ‘동아일보’ 지상에 국학관련 논설을 썼는데 그의 주된 목적은 일제침략으로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우리 선조들이 남긴 거룩한 문화유산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것과 우리민족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속에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에 쓴 그의 글은 이같은 두가지 목적을 위해 쓴 논설로 볼 수 있다.

첫째 ‘조선고전해제’를 신문에 연재했고, 둘째로 우리나라 역사가 낳은 큰인물로 시조 단군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 그리고 조선왕조의 고질적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농촌 빈곤타파를 역설한 실학자 정약용을 들었다.

1930년 좌우익으로 갈라진 민족진영이 통일에 실패하고 이듬해 일제의 대륙침략(만주사변)이 시작되자 민족의 사기는 한층 떨어졌다.

그러한 때 담원선생은 ‘5천년간 조선의 얼’을 발표했다.

“누구나 어릿어릿한 사람을 보면 얼빠졌다고 한다. 얼빠진 사람은 거품만 남은 사람이다” 담원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얼은

결코 남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잊어버리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 육체의 죽음(身死)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죽음(心死)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담원선생은 실학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물질적 발전이나 경제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발전과 인격적인 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선생은 실심(實心)을 강조하였지 실물(實物)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국학연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업적은 단군연구이다.

그는 단군없이는 한국이 없고 한국인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건디어낸 압축시대가 끝나자 즉시 대한민국 건국준비사업에 참여했고 건국후 초대 검찰위원장직을 맡아 새나라의 관기(官紀)를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이 발발했고 병상에 누워있던 선생은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선생은 1940년 중앙중학교 노국환 등이 최북현교사의 지도로 비밀결사 5인독서회를 조직 운영할 때 국제정세, 임시정부소식 등 시사를 평론지도하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2년 7월 함흥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육사 이원록 선생

저항시인의  
별명인  
다우의  
살이

이국땅 중국 북경의 차디찬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한 육사(陸史) 이원록(李源祿). 그는 죽는날까지 식민지의 절망적 상황하에서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시(詩)의 시다움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암흑기 최대의 저항시인이자 탁월한 예술시인이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1904년 음력 4월 4일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에서 태어났다.

전통 유학자인 아은(亞隱) 이가호(李家鎬)를 아버지로, 의병집안인 범산(凡山) 허형(許衡)의 딸인 김해 허씨를 어머니로 하여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특히 육사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거느린 중들을 풀어주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버린 조부 치현(痴軒) 중직(中植)공으로부터 한문수학을 하면서 차츰 인생과 세상에 대한 눈을 떠왔다. 이른바 삼강오륜의 유가적 세계만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간의 평등한 이치와 사람사는 규범을 익혀간 것이다.

이같은 가정에서 성장한 육사의 5형제는 우애가 매우 깊어 평생을 한 뜻으로 조국광복을 위한 길로 매진해 나가게 된다. 들어서는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 깊으며 나아가서는 조국과 민족에 헌신한다는 유가적 세계관을 실천한 것이다.

1926년 중국 북경 조선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제1기로 졸업한 육사는 1927년 장진홍(張鎭弘)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당하여 2년 7개월간의 옥고를 겪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다시 대구격문사건(大

邱檄文事件)의 주모자로 지목받아 체포되어 6개월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육사는 이후 1930년말 경 중국 북경으로 가서 북경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외일보와 조광(朝光) 등 잡지에 시를 발표하면서 항일정신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혁혁한 독립투사이자 탁월한 시인으로서 생전에 시집 한권 내지 못하고 이국땅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친 육사.

그는 40평생 17차례나 영어의 고초를 겪으며 이국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는 생경한 이태올로기의 나열이나 전투적 구호로 일관되어 있지 않다.

그는 투사로서의 길이 바로 시인으로서의 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치열한 민족정신과 저항정신, 자유와 평등정신, 그리고 투철한 현실의식에 자리잡은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시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올바른 삶의 길과 바람직한 예술의 길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중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그의 대표작 「청포도」는 지금까지도 애송되고 있다.

육사는 분명 일제하 민족운동사 또는 독립투사의 정점에 놓이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문학예술의 기둥으로 서있는 우람한 존재이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 환산 이윤재 선생

### 우리말 연구 보급 통해 민족정신 고취

환산(桓山) 이윤재(李允齋)선생은 1888년 12월 24일 경남 김해시에서 아버지 이용준과 어머니 이임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은 한학을 배우다 늦게야 신학문에 뜻을 두어 김해공립보통학교와 대구계성학교를 거쳐 중국 북경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19년 평북 연변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 3·1운동이 일어나자 주동적 역할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1년 6개월동안 옥고를 치루었다. 1921년 출옥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북경대서 3년간 수학 후 귀국하여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서 교육에 종사하였다

1925년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에 가입 활동하였고 1927년에는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말사전 한권도 없음'을 통탄하고 조선어연구회의 동지들과 국어사전 편찬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윤재선생은 국어사전의 편찬을 위해 한글 맞춤법 통일과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등을 주도하고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책임편집자로 한글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에는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다.

1931년부터 4년동안 조선어학회에서 실시한 한글강습회 일로 전국을 순회하며 한글 보급운동에 앞장섰고 '한글 철자법 일람표'를 간행했으며 '성웅 이순신'을 찬술하기도 했다.

「성웅 이순신」은 출간되자마자 일제에 의하여 판매금지 당하였다.

1934년에는 국학 및 사학자 동지들과 함께 역사연구단체인 진단학회를 창립 참가하고 「진단학보」 발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7년 6월에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일경에 피체되어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상고하여 1941년 1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방면되었다.

그는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의 경과 기략', '훈민정음의 창정(創定)', '세종대왕과 문화사업', '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병자수호조규 성립안의 전말', '성경철자를 개정하다'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윤재선생은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운동으로 최현배, 김윤경 등 동지들과 함께 다시 일경에 피체되어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서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아 1943년 12월 8일 고문의 여독으로 감방에서 옥사하여 순국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또 문화부는 1992년 10월 한글날을 계기로 그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문화의 인물로 선정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 심산 김창숙 선생

독립투쟁의  
유망한  
독립투쟁  
유망한  
독립투쟁  
유망한  
독립투쟁  
유망한

독립운동가이자 성균관대학교 설립자인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은 1879년 경상북도 상주군 대가면 사월리에서 부친 김호림과 모친 안동 장씨 사이에서 태어나 양친으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27세가 되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 공포되자 서울로 가서 조약에 참가한 을사5적의 목을 벨 것을 상소했고 1908년 30세 때에는 애국계몽운동 조직의 하나인 대한협회(大韓協會) 성주지부를 결성하고 구습타파와 차별적 계습타파운동에 앞장섰다. 이듬해인 1909년에는 '한일합방론'을 제창한 매국노를 성도하는 건의서를 중추원에 제출했고, 또 1910년 초에는 향리의 청천서당(晴天書堂)에 사립 성명학교(星明學校)를 세워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영남 및 충청도의 유림 1백 37명의 연명으로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휴대하고 바로 중국 상해로 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유림단 사건 즉, 파리장서 사건이다.

또 그해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의정원의 의원(경북대표)으로 선출됐고 이후 중국 지도자 손문(孫文)등과 회합, 한중 양민족의 협력과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1924년에는 만주와 몽고 접경지대에 새로운 독립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고, 그곳

에 군정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1925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전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후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경찰에 붙잡혀 옥중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으나 옥중에서도 일제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1926년 이동녕·김구·김원봉 등과 상의 1차로 의열단의 나석주를 과결하여 동양척식회사를 폭파케하였다. 국내 유림들도 그를 도와 보급운동을 하였고 이에 600여명의 유림이 투옥되는 유림단사건이 발생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선생은 신탁통치 반대투쟁과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주도했으며,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 1946년 9월 유림의 지원을 토대로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초대학장을 맡아 교육운동에 투신하고 1950년대에는 정부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다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다가 생을 마친 김창숙 선생은 대의명분론에 입각해 철저한 비타협의 선비정신을 고수한 진보적 유학자요 민족주의자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 매천 황 현 선생

## 경술국치 소식 듣고 자결한 우국지사

매천(梅泉) 황현(黃玟) 선생은 한말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자결 순국한 우국지사이다.

선생은 1855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선조 가운데에는 황희정승이 있고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전사한 황진장군과 병자호란 때 의병장 황위장군이 있다.

매천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어 선생을 가르친 왕석보(王錫輔)는 일찍부터 매천이 장차 큰 학자가 되리라 예언하였다. 열한살 때 한 무리의 기러기를 보고 “기러기 소리 처음 어른들 노는 자리에 들려 오네”라는 한시를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24세 되던 해(1878)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이진창, 김택영 등과 교류하면서 매천의 글이 장안에 알려지게 되었고, 26세 되던 해(1880년)에는 금강산을 유람하며 기행시를 썼으며, 그의 뛰어난 글솜씨로 인해 한말삼재(韓末三才)의 한사람으로 일컬어졌다.

29세 때(1883년) 부모의 소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시골 출신이라 하여 2등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단념하고 전남 구례 만수동에 칩거하여 시작(詩作)과 저술에 전념하였다.

34세 때(1888년) 부모의 권유를 어기지 못해 다시 과거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부정부패로 찌들어가는 정치 현실에 실망하여 벼슬길을 영영 단념하고 구례 월곡마을에서 ‘매천야록’ ‘오하기문’ ‘동비기략’ 등의 저술에 전념하였다.

45세 때(1899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언사소(言事疏)」를 지어 조정에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매천은 언로(言路)를 열 것,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 등 아홉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병든 이 나라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51세 때(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국노를 규탄하는 시 ‘문변삼수(聞變三首)’와 애국지사를 애도하는 시 ‘오애시(五哀詩)’를 지었으며, 52세 때(1906년)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애시(哀詩) 여덟 수를 지었다.

54세 때(1908년) 향토인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신식학문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그 뒤 일제에 의해 폐교되고 방광(放光) 초등학교가 현재 그 후신으로서 매천선생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다.

56세 때(1910년) 일제에 의해 끝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절명시(絶命詩) 4수와 유서를 남긴채 자결 순국하였다.

장지연은 자신이 주필로 있던 경남일보에 매천의 절명시를 보도했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정간당하였다.

1911년 매천 사후에 친우 창강 김택영이 상해에서 매천의 시집 ‘매천집’을 출판 배포하였다. 그 후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매천야록’을 간행하였으며, 1962년 구례 월곡에 ‘매천사’를 준공하였고, 1985년 전남대학교에서 ‘매천집’을 간행하였다.

# 한서 남궁억 선생

## 무궁화 나뉘주며 애국심 양육 한

한서(翰西) 남궁억(南宮億)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지키고 가꾼 애국지사로서 유명한 분이다. 선생은 1863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서 1939년 77세를 일기로 영면했는데 그 정신은 무궁화를 통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가슴속에 살아 남아 있다.

그는 1884년 아무도 영어를 배우려 들지 않았던 시절 영어학교인 동문학(同文學)을 수료하고 어전통역관이 되어 관리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는 부정 부패가 심해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으나 남궁억은 청렴결백해 사람들이 옥같이 맑고 얼음같이 희다고 말했다.

남궁억은 대표적인 개화파의 한사람이었으나 정치보다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에 강사로 나가 학생들에게 개화사상과 애국정신을 가르쳤다. 곧 이어 독립협회에 가입해 개혁운동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남궁억으로서는 일종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남궁억은 언론계에 투신하게 된다. 독립신문을 편집한 경험을 살려서 황성신문 사장으로 취임한 남궁억은 1902년 일본이 러시아와 한반도 분할안을 토의하는 것을 폭로해 일제의 침략야욕을 백일하에 알렸다.

남궁억은 무엇보다도 자기 분수에 맞게 각자 할 일에 충실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여성교육의 일선에도 나섰다. 그가 서울의 배화학당 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독립할 조국의 동량(棟梁)을 위해 일한다는 각

오로 굳게 섰기 때문이었다. 여성교육이란 당시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궁억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벌써 50대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무궁화를 통한 애국심의 함양과 여권의 신장에 온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는 교단을 떠나야 했고 정든 서울을 떠나가는 남궁억선생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이 낙향의 길에는 남궁억의 생애 최후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먼저 모곡리 고향 마을에 교회를 짓고 주일학교를 개설했다. 그리고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의 잠자리를 마련했다. 새 교사를 짓고 국민학교 인가를 받은 것이 그의 나이 60이 되던 해이다. 남궁억 교장은 학교 뒤뜰에 무궁화밭을 일구어 7만이나 되는 많은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몰래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또 무궁화 노래를 지어 널리 퍼뜨려 민족정신을 일깨웠다. 나라꽃 무궁화처럼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난한 상징물은 달리 없었다. 남궁억은 무궁화만이 아니라 국어와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그가 직접 쓴 역사책으로 '동사략'이 있고 '조선이야기'라는 동화도 국사책이었다. 국사교육이 더욱 어려워지자 '조선어보충'이라는 한글책에 국사이야기를 담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남궁억의 외로운 민족운동을 일제가 탐지하게 되어 끝을 맺게 되었으니 1933년 무궁화사건이 그것이었다.

# 백암 박은식 선생

## 「한국통사」 쓴 민족사학자로 독립운동 전개

박은식(1859~1925)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요 언론인으로 활약하며 민족혼을 일깨운 분으로 1994년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그가 30대 때 대원군과 명성황후, 수구당과 개화당 등의 파벌항쟁과 자주성이 결한 근대 외교와 문명수용이 국가사회를 위기속에 몰아 넣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그는 이같은 사회변동속에서 그의 사명과 의무를 수행하였다.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외세를 격퇴하며 근대사회를 건설하려는 방도가 구국의 첩경임을 자각, 민족교육과 민중계몽에 앞장 섰다.

그의 활동이 표면화된 것은 독립협회 활동이 고조되었던 만민공동회의가 열린 1898년 경 부터였다. 이 해 9월에 민족 지사 장지연·남궁억·나수현·유근 등이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새로이 '황성신문'이란 제호로 창간 보급하였는데 그는 장지연과 함께 주필로 취임하였다.

190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교육계에도 투신하여 유림의 태두 광종석·김창숙 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에 들어가 국민교육 담당자를 집중 육성하였다.

경술국치 후에는 국내에서 정치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최남선과 더불어 서울 광문회에서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민족운동을 잊은채 칩거할 수 없었던 그는 서간도 환인현으로 망명하였다.

그곳은 고구려의 환도성이 있던 곳이고 또 한 발해의 서원압록부의 옛땅이므로 첫 사업으로 민족 고대 발전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발해의 유적을 조사하고 고전과 사서를 탐독 연구하여 '동명성왕실기', '대동고대사론', '명림답부전', '개소문전', '발해태조건국지', '건몽금태조' 등을 저술하였다.

박은식은 서간도에서의 사업을 한정없이 계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국인이 많이 이주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노령 연해주를 편력하고 곧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신규식·홍명희 등과 더불어 '동제사'를 조직하고 총재에 추대되었다. '동제사'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상해를 중심으로 중국 각지와 남북만주 및 연해주 등의 1백만 한민족을 바탕으로 조직된 해외민족운동가들의 독립운동기관이었다. 이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913년 상해에서 '안의사중근전'과 '한국통사'를 저술하여 민족사학가로서의 경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1924년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고 대통령대리를 겸직하였으며 1925년 3월에는 이승만 후임으로 제2대 대통령에 선임되어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그의 공훈을 기렸다.

또 문화부는 선생을 문화의 인물로 지정 여 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 단재 신채호 선생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선생은 1880년 11월 7일 대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태어났다.

단재선생은 1898년 성균관에 입학했다가 독립협회에 가입했으며 만민공동회, 운동 때에는 간부급으로 활동했다. 독립협회가 해산 당할 때 일시 투옥되었다.

1905년에는 장지연의 요청으로 황성신문의 논설기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장지연의 '是日也 放聲大哭'이라는 논설로 황성신문이 무기정간되자 대한매일신보 논설기자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국권회복에 국민이 성력을 다할 것을 계몽하였다.

1907년 4월 양기탁·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운동의 비밀 결사로서 신민회가 창건되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단재는 신민회의 이념과 목표를 그의 논설 속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민을 계몽했으며 신민회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애국계몽운동기에 독사신문, 을지문덕,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 동국거결최도통전, 대동사천년사 등을 저술하여 근대민족사학을 수립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경에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발기회에 참가하였다. 1919년 10월에는 상해에서 '신대한' 지를 발행하여 무장투쟁노선을 지지하는 언론활동을 하였고 신대한동맹단을 조직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 민족사학정립... 언론통한 독립투쟁 전개

1921년 1월에는 김창숙 등의 지원을 받아 '천고' 잡지를 창간하여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0년 4월에는 54명의 동지들과 함께 위임통치청원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공표하였다.

1923년 1월에는 의열단의 요청을 받고 의열단의 독립운동노선과 투쟁방법을 천명하는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자 창조파에 가담하여 상해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자 크게 실망하여 첩거하면서 국사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상고문화사(1931년 서울에서 간행), 조선상고사(1924년 집필, 1931년 서울에서 간행), 조선사연구초(1930년 서울에서 간행)에 실린 논문들을 집필하여 근대 민족사학을 확립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 후 점차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1926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했으며 1927년 9월에는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이필현과 함께 조선대표로 참석하였다.

1928년에 4월에는 그 스스로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북경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결의에 따라 독립운동자금을 출연하려다가 일제관헌에 체포되어 10년형을 받고 복역중 1936년 여순감옥에서 옥사하였다.

# 외솔 최현배 선생

## 우리말과 글 연구로 나라사랑 실천

외솔 최현배(崔鉉培)선생은 우리말을 소중히 지키고 국어문법을 체계화하는 등 한글연구와 국어교육에 헌신하였으며 일생동안 우리말과 글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한글학자이다.

최현배선생은 1894년 10월 19일 울산시 하상면 동리에서 아버지 최병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4세때 울산 병영에 설립된 일신학교에 입학하여 이른바 신식교육을 받았으며 17세가 되던 1910년 지금의 경기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한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 해 나라를 잃고 모든 교과내용이 바뀌고 학교운영의 주도권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가자 주시경선생이 가르치는 조선어강습원으로 나가 한글과 국문법을 배우고 독립사상을 고취받았다.

1925년에는 일본 경도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1926년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조선민족생명의 도(道)'를 저술하였다. 선생은 이 저서에서 한국민족이 다시 독립하는 방도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26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1937년까지 재직하다가 1938년 안재홍 등 기독교 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의 단체인 흥업구락부의 독립사상 고취운동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연희전문교수직에서 해직되었다.

그 사이에 한글연구에 정진하여 조선어연구

회에 가입해서 1926년 107명으로 구성된 조선어사전편찬회에 참가했고 1934년 '중등조선말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흥업구락부운동으로 실직된 기간에 한글연구에 더욱 집중하여 1941년 그의 대표작 '한글갈'을 완성하여 출간하였다.

1942년 10월 일제가 민족탄압 정책으로 한국어 말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한글연구자들을 투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서 일제의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다. 1945년 1월 16일 징역 4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3년간의 옥고를 겪었다.

1945년 8·15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 한글학회 이사장, 연희대학교 교수와 부총장, 학술원 회원, 학술원 부원장 겸 종신회원,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글연구와 한글 전용운동 등에 전념했으며 한글 가로쓰기의 실험과 한글기계화운동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하였다.

문화부는 최현배선생을 1993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고 한글진흥에 힘쓴 생애의 업적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선생은 1970년 77세로 위대한 생애를 마쳤다.

# 위암 장지연 선생

언론계  
통해  
일제침략규탄  
·  
애국계몽의  
앞장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선생은 경북 상주시 내동면 동곡리에서 1864년 11월 30일 태어났다. 장석봉의 문하에서 배우고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 만행이 자행되자 의병의 꺾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지어 각처에 발송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1898년 황성신문이 창간되자 기자로 활약했다. 같은 해 11월 만민공동회에서는 간부급으로 활약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국권을 박탈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 비밀에 부치자 위암선생은 황성신문에 '是日也 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써서 폭로하여 시내에 배포했다. 이리하여 국민들의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국권회복운동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위암선생은 국민의 애국계몽을 위한 저술활동에도 정력적으로 종사하여 대한최근사, 동국역사, 대동문수 등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1907년 1월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문과 잡지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또 안창호를 중심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 신민회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 맹활약했다.

1907년 1월 일제가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탄압법들을 연달아 제정하자 대한자강회

회원들과 함께 격렬한 반대시위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하여 자강회는 강제 해산당했다. 이에 그 후 단체로 1907년 11월 권동진·남궁억·유근·오세창 등 동지들과 대한협회를 발기하여 조직했다.

1908년 2월 연해주로 망명하여 해조신문 주필에 취임했으나 재정난으로 신문사가 문을 닫자 상해와 남경 등 중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일제 첩자로 보이는 괴한에게 피습, 부상을 입고 1908년 8월 귀국하였다.

1909년 1월 영남지방의 교육구국운동 단체인 교남교육회의 취지문을 지어 지원했으며 이 학회 편집원의 책임을 맡았다. 1909년 2월에는 대한협회 정정부문(呈政府文)을 지어 자주독립을 역설했다.

190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의 주필로 초빙되어 다시 언론구국운동을 계속하다가 1910년 일제가 나라를 병탄하고 이에 항의하여 선비들이 연이어 자결하자 황현의 절명시를 경남일보에 게재하여 일제를 규탄하였다.

이로 인해 경남일보가 폐간되고 활동의 무대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1911년 이후 고향 상주에서 칩거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으로 통탄하다가 1920년 10월 2월 마산에서 운명하였다.

정부는 위암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 ‘충남 지역문화 현장탐방·대화 및 컨설팅’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매월 하순 펼쳐지는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논산시·청양군·당진군 등 3개 시군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 지역 13개 축제에 대한 컨설팅과 병행하여 전체적인 지역문화행사의 흐름을 조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중한 추진위원장과 이종인 상임위원, 강준혁·김명자·박인배·정강환 위원을 비롯해, 문화관광부측에서는 최천식 신임 전통지역문화과장·안신국 사무관·김동욱 주사가·컨설팅트로서는 추미경 다움연구소 연구원·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소장 등이·충남도청에서는 나상록 문화관광과 계장·유병구 문화관광 담당·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김현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이 참석하여 충남 지역문화의 현안과 지역문화예술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함께 고민하였다.

첫날 논산시에서는 추진위와 문광부측 외에도 공주시·논산시·부여군·금산군·서천군의 문화활동가와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강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이해준 교수의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경청하고, 이어서 펼쳐진 백제문화제, 팔충제(고천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전통맛жат축제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토론한 후 강경전통жат시장 현장을 탐방하였다.

이날 있었던 초청강연에서 이해준 교수는 “보물



△ 철갑산장승공원에서의 현장 컨설팅 모습



△ 청양고추축제에 대해 답변하는 정강환 추진위원

찾기 식의 문화소재 발굴이나, 정책적인 사업보다도 우선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의 문화자료의 기초 데이터화이다. 그러한 기초 데이터의 분석과정에서 문화의 발전 비전도, 복원도, 미래설계도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라며 지역문화 진흥의 원동력은 착실한 기초연구와 DB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컨설턴트로 나선 추미경 연구원은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구조의 다이어트'를 주장하기도 하여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한국의 수많은 지역축제를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화된 기획력이나 행정력 없이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많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는 평가였다.

둘째날 청양군에서는 보령시,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의 문화활동가와 관계관들이 모여 청양문화체육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강준혁 추진위원(추계예술경영대학원장)의 「지역축제를 비롯한 복합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과 슬피축제·추사문화제·대동산신제에 대한 컨설팅에 참석하였다.

특히 이 날 질문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전통적 신앙 의례에서 기원한 축제의 경우 일부 종교인들에 의해 미신으로 취급당하며 행사진행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컨설턴트로 참여한 강준혁·김명자 위원과 추미경씨는 입을 모아 "문화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산신제 등 전통 문화에 기반한 의례성 축제들을 문화행사로서 바라

보는 인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한편 종교의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주민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동산신제라는 제의가 보부상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좀더 집중조명하여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장소를 옮겨 칠갑산장승공원에서는 칠갑산장승공원 현장 탐방 및 청양고추축제, 칠갑문화제, 칠갑산장승축제에 대한 현장컨설팅이 있었다.

### 이제는 '축제의 다이어트'에 눈돌려야 할 때

셋째날인 4월 25일에는 최근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과 부쩍 가까워져 생활상의 변동이 예상되는 당진군에서 서산시·당진군·태안군·홍성군의 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박첨지놀이

당진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서산박첨지놀이'의 공연을 통해 같은 '꼭두각시놀음'이라도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놀아지는지, 충남 서부의 흥과 멋은 어떤 것인지를 느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산박첨지놀이가 끝난 후 김현구 서산문화원장(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의 「충남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이라는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 김현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충남 서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보존의 미흡함을 질타하며 책임있는 관계 기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남이흥장군 문화제 등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소장은 기지시줄다리기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축제의 본원적 의미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표현, 일탈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상품화할 경우 자칫 지역축제의 본뜻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이흥장군문화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위인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를 관광축제로 이행하려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진의 새로운 축제의 방향을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선부른 상품화를 경계할 것을 충고했다.

4월 충남지역문화현장 탐방·대화 및 컨설팅에서는 컨설턴트들에 의해 각 축제마다 너무 많은 아이템으로 인해 번잡하고 특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새로운 기획보다는 기존의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와 세련화 작업, 즉 축제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한편 추진위는 5월의 탐방 및 대화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전국 12개 도·시·지역의 문화활동가들과 관계관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 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소장

## 반사경 컨설팅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컨설턴트들과 지역활동가들의 교류를 이끌고, 평소 지역주민들이 가졌던 지역문화 진흥방안에 대한 검증과 확신을 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었지만, 13개 축제를 집단적으로 컨설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내용적 깊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위에서는 컨설팅 대상을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며 컨설팅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문화 상황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가 모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DB이지만 검색의 효율성과 시간 소요 문제를 고려하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존의 정보나 열식 DB가 아닌,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 DB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흔히 일본의 지역축제가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바, 단지 기획과정만 배우지 말고 그네들이 오랜 기간 지역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왔음을 주목하고, 기초연구에 힘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컨설팅 참관기 I

# 합천 밤마리장승문화마을과 탈장승축제 기획 컨설팅

지난 4월 23일 경남 합천군 덕곡면 면사무소에서 밤마리장승문화마을 조성 및 탈장승축제 기획을 위한 컨설팅이 열렸다.

덕곡면은 산이 많은 합천에서도 제일 깊숙한 곳에 있고 낙동강 지류를 끼고 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다. 그러나 이곳은 경남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각종 오광대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예전 낙동강 수운이 제 기능을 하였을 때는 하루에 소를 10마리나 잡을 정도로 큰 나룻터가 있었다고 전해 오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꽤 큰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장승과 관련하여 장승제를 올렸다고 하며 지금도 마을 중앙의 서낭당에서 정월 대보름마다 동제(洞祭)를 올린다.

마을 발전에 열성적인 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장승을 깎아 마을 진입로에 가로수처럼 세워 놓았고, 장승공원도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문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본 추진위로 문화마을 조성 및 탈장승축제 기초 기획을 위한 컨설팅 신청을 해왔다.

질의서에 적힌 내용으로 보아 민속학자들이 적임이라 판단하여 안동대 민속학과와 김명자 교수(추진위원)와 한남대 이필영 교수(한남대 박물관장)가 컨설턴트로 나서 주었다.

컨설턴트의 답변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의 복원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충분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탈장승이라는 것은 유래가 없는 것으로 조형적인 의미는 있을지라도 전통문화의 복원은 아니다. 충분한 학술

조사가 시급하다.

둘째, 장승 관련 아이템은 너무 흔하므로, 마을의 서낭제 전통과 연결시키려면 진입로의 장승들과 함께 서낭기도 꽃아놓아 마을 분위기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지금도 전승되는 서낭제야말로 이 마을의 핵심적인 문화자원이 될 만하다. 이것을 보다 충실히 지내도록 하고 메구(풍물)도 보다 활성화하자.



△ 경남 합천군 덕곡면은 오광대탈놀이 발상지



△ 컨설팅 장면

넷째, 특히 안내판의 문구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손질하자. 장승을 토테미즘(Totemism)과 토템폴(Totem Pole)이라 하였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게다가 한 문장이 너무 길다.

특히 이필영 교수는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자문’이나 ‘상담’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해야 한다. 때로는 지방의 촌로들과 논의할 경우도 있는데, 그들에게 어찌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줄 수 있다. 항상 현장에서 현지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들은 최대한 현지주민들의 ‘언어’로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것은 추진위도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컨설팅 참관기 II

#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태백산철쭉제 컨설팅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 철쭉제에 대한 컨설팅은 태백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아울러 다루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석탄산업이 흥했을 때에는 12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는 그 절반도 안되게 줄어들어 태백시의 경제활성화가 문화관광에 달려있게 된 때문이다.

태백시는 과거 우리나라 최대의 탄광지대여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는 검은 석탄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탄광은 거의 대부분 폐광이 되었고 이제는 청정한 자연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한복판에 자리하여 있기에 광업을 제외한 농업이나 기타 산업은 발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역사적으로 태백지역은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많은 은사들의 심신수련 장소로 각광을 받았고,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며,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의 에너지원 노릇을 하기도 하여 태백시민은 ‘베푸는 고장’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고냉지 한우, 약재 등 특산물도 풍부한 데다가 여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모기가 거의 없어 동해안 피서객들의 숙박지로도 유명하다. 그런 이유로 각종 운동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도 각광을 받는데, 올해도 16개나 되는 커다란 스포츠행사가 벌어질 예정이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어서 자연학습장 역할도 기대되는 관광자원의 보고인 셈이다.



이 고장의 축제로는 크게 태백산철쭉제(초여름), 눈축제(겨울), 쿨씨네마축제(한여름) 등이 있고 이 밖에 한강대제, 태백제, 해맞이축제 등이 있어 타지역에 비해 독특한 관광요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워낙 위치가 외진 곳이어서인지 태백시의 기대만큼은 충족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추진위원회에 컨설팅을 의뢰한 바, 종합적인 컨설팅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준혁 추진위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였다. 다음은 컨설팅 답변 요지이다.

① 태백의 기존 이미지(석탄, 탄광)를 바꾸려면 이미지 통합작업이 필요한데, 고냉지한우·청정대기·한우·약재·기(氣)수련 등 휴식과 청정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팜플렛 등에도 새로운 엠블럼과 마스크트 등을 도안할 필요가 있다.

② 화석을 관광문화상품화하려면 견본시를 운영하고 화석박물관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각지의 학교들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화석발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생들이 원시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③ 보다 효율적인 민박 운영방법으로 'B & B(bed and breakfast)' 라는 국제 표준의 숙박관리 시스템을 참고해 보자. 청결, 위생, 식사, 숙박 등등에 대한 일종의 표준안을 만들고, 숙박업자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④ 하드웨어적인 투자로는 테마벨리지를 조금씩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백은 다양한 관광요소가 있으므로 아이템별로 조그맣게 테마벨리지를 조성해 보자. 또 각종 행사장의 장소가 협소하다. 이 경우 광장 조성 등에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또 화석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직 하다.

⑤ 철쭉제의 경우 주제가 혼한 만큼 화석이나 그 밖의 주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존의 먹거리 장터를 노점상에게 분양하는 방식은 마가지

상혼 문제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만 심화된다.

⑥ 태백시의 관광도시화와 철쭉제의 성공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먼저 충분한 연구를 해야 한다. 당장의 결과만 생각해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 전통문화, 향후 개발계획, 인근도시와의 연계 등을 생각하여 충분한 조사연구를 거쳐야 한다.

⑦ 공무원의 해외파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와야 한다.

태백은 충분한 문화지표조사가 안되어 있고, 연구용역 예산도 충분하지가 않다. 이 점은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비슷한 실정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대학의 학술답사단을 꾸준히 유치하면 자연히 태백지역이 연구지역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 홍보도 되며, 잠재적인 관광객을 늘리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끝으로 컨설턴트와 사무국 직원을 따듯히 맞아 주신 홍순일 태백시장님, 장호영 관광문화과장님, 배일환 계장님, 송 선생님 등 모두 감사드리며 태백시의 발전을 기원한다.☞



△ 현장에서 축제공간의 배치를 설명하는 강준혁 위원

# 청소년 중심 지역문화 영상물 공모 안내

## 사업취지

대학생·청소년 등 영상세대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을 공모해 젊은 세대들과 지역주민들이 우리 문화의 기본토양인 지역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 공모분야

### 1. 영상세대 '카메라 출동'

- 젊은이들이 카메라를 메고 직접 어느 한 지역의 문화재 및 풍습, 지역축제 등을 선정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심층 촬영한 영상물(촬영지역에 대한 제한없음)
- 예선 공모를 통하여 각 20편(청소년부 20편, 성년부 20편)씩 총 40편의 예선작을 선정된 뒤, 해당 40편의 제작자들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 해당자들은 지급된 제작지원금으로 본선작을 제작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제출하고, 제작된 40편의 영상물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시상

### 2. 지역주민 영상공모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각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특성 및 주민자치 활동, 내 고장 자랑거리 등을 촬영한 영상물(거주지역의 범위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로 1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최종 심사 시상

## 공모내용

- 각 지역의 문화재, 풍습, 축제, 인물, 역사 등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영상물

## 응모자격

- 영상세대 '카메라 출동'
  - 청소년부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중·고생 포함)
  - 성년부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성인(대학생 포함)
- 지역주민 영상공모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개인, 지역시민단체 및 각종 모임 (연령제한 없음)
  - ※ 각 부문 중복 응모 불가 (중복 응모 시 응모 자격 박탈)

## 공모일정

- 영상세대 '카메라 출동'
  - 예선 공모 : 2001년 4월 18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 예선 입선작 발표 및 본선작 제작 지원금 전달 : 2001년 9월 15일
- 본선작 접수 (1차 예선 통과자에 한함) : 2001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 지역주민 영상공모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공모 : 2001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각 분야 최종 발표는 2001년 11월 15일 시상식은 '2001, 지역문화의 해' 폐막식 때 실시

### 영상물 제작

- 형식 : 6mm, 8mm, VHS 방식 등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영화 등 자유 형식
- 시간 : 10분 이내
- 제출 : 최종 편집이 완료된 Tape
  - ※ Tape에 성명과 영상제목, 시간 등 Index를 표시하여 제출
  - ※ 제출된 Tape은 일체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된 모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소유함.(추진위원회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저작권을 소유하며, 그 이후의 저작권은 각 제작자에게 귀속됨)

### 시상 내역

#### 1. 영상세대 '카메라 출동'

##### ◆ 본선작 제작 지원비 (1차 예선 통과자에 한함)

- 청소년부 20명 각 300,000원
- 성년부 20명 각 400,000원

##### ◆ 최종 우수작 상금 (성년부)

- 문화관광부 장관상(대상) 1명 2,000,000원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1,500,000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1,500,000원

##### ◆ 최종 우수작 상금 (청소년부)

- 문화관광부 장관상(대상) 1명 1,500,000원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각 1,000,000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1,000,000원

#### 2. 지역주민 영상공모 '작은 것이 아름답다'

- 문화관광부 장관상(대상) 1명 2,500,000원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각 1,500,000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5명 각 500,000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5명 각 500,000원

### 응모 방법

- 지역문화 영상물 공모의 응모자는 편집이 완료된 영상물 Tape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응모
  - ▶ 주소 : (우편번호 :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B/D 1202호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사무국
  - ▶ 전화 : 02-713-9914~5, FAX : 02-713-8997
  - ▶ 홈페이지 : <http://www.region2001.org>
  - ▶ E-mail : culture2001@naver.com

## 단오의 민속학적 의미

### I

금년에는 윤4월이 든 관계로 6월25일이 음력으로 5월5일이어서 늦은 단오를 맞게 된다. 단오(端午)는 설·한식·추석과 함께 예로부터 사대(四大) 명절의 하나로 크게 기려온 세시풍속이다. 선조들은 이들 명절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절기에 맞는 세시음식과 놀이를 즐기으로써 삶의 조화와 활력을 체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풍양속도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우주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생멸과 변화를 거듭한다.

사대 명절 중 설과 추석은 현재에도 크게 성행하지만 한식과 단오는 잊혀져가는 민속이 되었다. 그래도 한식은 식목일과 자주 겹치는 관계로 조상의 묘지를 돌보고 소주잔이나마 올리는 것으로 잔재하지만 단오는 민중의 손을 떠나 한장군놀이와 강릉단오제 및 민속박물관의 단오전시회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절기의 꽃으로 사랑받던 단오는 완전히 소멸되어버린 사화산(死火山)인가, 아니면 언젠가 화려하게 터질 날을 꿈꾸는 휴화산인가?

### II

단오의 단(端)은 시초, 오(午)는 오(五)를 뜻하므로 단오란 초닷새를 의미한다. 단오는 5라는 숫자가 두번 겹치는 날이기에 달리 중오(重午)라 하고, 천중(天中), 단양(端陽), 수릿날(수렛날)이라고도 한다. 고려가요 <동동>에서는 수릿날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단오에 민간에서 만들어 먹는 취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와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수리'는 술봉이나 수리봉처럼 높다든 뜻의 高나 上 또는 신(神)의 뜻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에서는, 이 날에 밥을 수뢰(水瀨-여울)에 던져 먹리수에 몸을 던진 초(楚)의



김 의 속  
강원대 교수

시인 굴원(屈原)을 제사지냈으므로 수뢰날이라 한다고 하였다.

단오의 풍속은 기능별로 볼 때 대체로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곧 재액(災厄)의 예방, 여름철의 건강 유지와 신체 단련, 풍요의 기원, 신령에 대한 제사 등이다.

## (1) 재액(災厄)의 예방

단오는 바야흐로 무더위와 질병이 극성을 부리는 한여름철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절기이다. 중국의 문헌인 《형초세시기》에 의하면 5월을 쓸 때 '미워할 오(惡)를 써서 惡月 또는 毒月로 쓴다고 하였고, 『善正月 惡五月(정월은 좋고 오월은 나쁘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惡月에 대비하기 위해 애호(艾虎)라는 썩호랑이를 만들어 문에 걸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애화(艾花)라는 일종의 비녀꽃이를 하사하였다.

그러면 선조들은 한여름철의 무더위와 질병을 유발하는 음귀의 행패에 어떻게 대비하였을까? 그 대책으로서 먼저 적절한 날자의 택일(擇日)이 필요하였으니 그 날이 바로 양기가 최고로 승한 날인 5월 5일 곧 단오일이었다. 5는 1, 3, 7, 9처럼 양수에 속한다. 따라서 양수가 둘이 겹치는 5월5일은 양기가 상승한 길일이므로 온갖 음귀를 눌러주는 행사를 펼치기에 다시 없는 좋은 날이었다.

단오에 남자들은 액을 쫓아내는 상징물인 창포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여인들은 창포의 뿌리를 깎아 만든 '단오장(端午粧)'이라는 비녀를 꽂았으며,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 두통을 쫓고 모발을 좋게 하였다. 그리고 이 날 새벽에는 배앓이와 땀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익모초와 약썩을 캐어 말리고 동시에 약썩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었는데, 이는 질병을 몰아내고 사귀를 추방하는 재액(除厄)의 한 방편인 것이다.

관상감에서는 천중적부(天中赤符) 또는 단오부(端午符)라고 해서 주사(朱砂)로 부적을 써 대궐에 바치었다. 그러면 궁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 제액하였다.

그때의 부적에는, “五月五日 천중절에 위로는 하늘의 녹을 받고 아래로는 땅의 복을 얻어 치우(蚩尤)의 구리 머리, 쇠 이마, 붉은 입, 붉은 혀의 4백4병(病)이 일시에 없어져라. 빨리빨리 법대로 시행하라.”고 썼다.

## (2) 건강 유지와 신체 단련

단오 때는 질병이 많고 더위를 먹어 병이 나기 쉬운 한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마침 그때는 파종과 모내기를 끝내고 다소 여유가 있었으므로 몸을 보하고 건강을 위한 놀이와 조리를 시행하였다.

남자들은 씨름판을 벌이고, 여인들은 반선희(半仙戲)라는 그네를 탔다. 특히 단오날 오시(낮11시-1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단오물맞이와 모래찜질을 하였다. 여인들은 미용을 위해 창포탕으로 세수를 하고, 상추잎에 맺힌 아침이슬을 받아 얼굴에 발랐다. 그렇게 하면 버짐이 없어지고 피부에 좋다고 해서다. 중국에서 단오를 여아절(女兒節)이라고 하였듯이 이 때는 여자들이 나름대로 모양을 내는 절이었다.

민가에서는 영양 공급을 위해 수리취떡 외에도 썩떡·찹쌀떡·약초떡·망개떡·밀가루지짐이·미나리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익모초의 즙을 내어 마셨다. 궁중의 내의원에서는 청량제인 제호탕, 토사곽란과 더위먹음 치료제인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금박으로 싸서 바쳤다. 특히 옥추단을 하사받은 신하들은 그것을 오색실에 매어 차고다니다가 유사시에 물에 타서 마셨다. 그리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단오선(端午扇)이라 하였다.

선조들은 유비무환이라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로 길수(吉數)인 5월5일 단오날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며, 마을사람들과 화합의 놀이를 갖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령에게 제사하면서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단오야말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길목에서 잠자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소리 없는 가르침인 제야(除夜)의 백미속(白眉俗)처럼 한여름을 맞아 건강과 풍요를 예비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현장론인 것이다.

### (3) 풍요의 기원

농가에서는 나무의 양쪽 가지 사이에 남성 상징인 돌을 끼워넣고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원하는 '가수(嫁樹)'라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를 하였으며, 또 대나무를 이식하였다.

단오날 아침에는 절사(節祀)라 해서 온갖 농작물이 풍성히 자라 풍년이 들기를 조상님께 축원하는 차례를 지내었다. 또 아래에 제시한 안변이나 강릉 단오제의 기록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부부신을 합위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령의 강렬한 생생력을 통하여 다산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다.

### (4) 신령에 대한 제사

《동국세시기》에는 단오 때의 큰 제사로 군위, 삼척, 안변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군위에서는 매년 단오에 고을의 수석 아전과 주민들이 서악의 김유신사당에 가서 신령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 제사한다고 하였다. 삼척에서는 오금(烏金)으로 만든 비녀를 감추어 두었다가 매년 단오에 꺼내어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도로 감추어 둔다는 것이다. 안변에서는 선위대왕과 그 부인을 모신 상음신사(霜陰神祠)로부터 부부신을 모셔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단오제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고 큰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다. 단오제는 일년에 한번씩 단오를 맞이하여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

과 그의 아내인 국사여성황을 합위(合位)하고 굿판을 벌임으로써 강릉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축제이다.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단오에 왜구를 소탕하여 백성을 편안케 한 한장군을 기리는 '한장군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를 행하며, 경남 영산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문호장을 위무하는 단오굿을 행한다. 강원도 삼척 미로에서는 매년 단오날에 강릉단오굿과 유사한 굿판을 벌여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축원하고 있다.

### III

단오는 시기적으로 농사에 맞게 내려주어야 하는 비를 걱정해야 하고, 기온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온갖 질병을 염려하며, 무더위와 노동으로 허약해지는 체질을 근심해야 하는 한여름의 문턱에 존재하는 절기이다.

따라서 선조들은 유비무환이라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로 길수(吉數)인 5월5일 단오날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며, 마을사람들과 화합의 놀이를 갖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령에게 제사하면서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단오야말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길목에서 잠자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소리 없는 가르침인 제야(除夜)의 백미속(白眉俗)처럼 한여름을 맞아 건강과 풍요를 예비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현장론인 것이다.☐

# 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 해는 보훈의 달(6월)을 맞는 마음이 여느해 보다 훨씬 더 무겁다. 지난날 우리 나라와 겨레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30여만 순국선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이 그 죄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침략과 만행을 정당화하려고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충일(6일)이 들어있는 보훈의 달 6월은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과 자유 평화 위해 피흘린 호국영령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빛나는 위훈을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동시에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다짐하는 달이다.

그런데 나라와 겨레 위해 목숨 바치신 선열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공훈 그리고 유족들이 겪어온 시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예우가 미흡한 편인데다가 최근에는 일본이 또다시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82년에 이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버릇을 또 드러냈다. 일본정부(문부과학성)는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지난 4월 3일 검정 통과시켰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역사를 왜곡 축소 누락시킨 것들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서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국수주의 단체가 처음 만들어낸 교과서는 왜곡 투성이의 것이다.

일본우월주의적 세계관을 그대로 나타냈고 심지어는 한국 강제병합을 정당화 하는가 하면 태평양전쟁이 마치 아시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기술했을 정도이다.

일본의 그와같은 역사왜곡은 「오류」가 아니라 또다른 「죄행」인 것이다. 이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잇따른 항의 규탄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우리 정부와 북한·중국도 항의하고 재수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5월 8일 이른바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교과서에서 25개항, 기존 7개 교과서에서 10개항 포함 35개항을 지목해서 재수정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날 총리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재수정은 안되지만 한국의 주장도 성실히 받아들여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인 규  
(사)순국선열유족회 회장

## 일본의 양심 불감증이 근본 문제

일본정부는 「민간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은 별개문제」라는 논리로 재수정을 기피하려 한다. 그러나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가 「왜곡된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판단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지적(4. 13)한 바와 같이 그 책임을 일본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교묘하게 개입했고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회가 전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4. 12)하기도 했다. 그말은 양심적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정치권의 작용이 통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케해서 널리 활용토록 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에는 양심적인 시민도 적지않다. 도쿄대학의 「하스미」총장, 아시아 부인 우호회의 「미키 무츠코」회장(「미키 다케오」전 총리의 부인)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인과 일본정부의 양심 불감증이 일본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더구나 그 불감증이 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 근본 문제인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의도적으로 일본중심주의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의 간사장 「아마사키 다쿠」가 「육·해·공군 보유」를 명문화한,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시안을 마련(4. 29)한 것을 비롯해서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공언 등 전반적으로 일본은 황국사관으로 국수주의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

같은 패전국 독일은 나치시대의 죄행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동안 국적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과 피해국에 대해 527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3억 달러 추가 계획) 역사 교육도 철저하다.

일본은 그러한 독일을 본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거청산에 것처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나치 찬양세력이 대두하는가 하면 60%의 국민이 나치의 죄의식과 책임을 안느끼려하고 더이상 과거에 얽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5. 7 주간 「슈피겔」) 그러한 독일의 사례로 볼때 과거의 죄행을 진심으로 뉘우칠줄 모르는 일본의 장래야말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보훈의 뜻 제대로 살리고 보상도 이뤄져야

따라서 우리는 이럴때 일수록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본의 「잘못된 방향」을 견제, 시정토록 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일본의 교과서 재수정이 관철되고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민·관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사기와 역량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한편 우리 스스로도 민족의 자존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이제라도 친일파와 일제잔재 청산을 서둘러야 한다. 국사 특히 상고사와 근·현대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보훈의 뜻을 온 국민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간직하도록 생활 속의 보훈문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겨레 위한 헌신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보상하고 전국민이 마음속 깊이 받들고 예우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상기시키고자 하는 일도 있다. 순국선열에 대한 생명보상이 그것이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항쟁한 독립운동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헌신이였다. 또 정부의 보호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피해 또한 엄청났다.

그러기에 순국선열에 대한 보상은 광복 후 제1차적으로 시행했어야할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순국선열 사망보상이 광복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행여 선열의 명예에 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보상요구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보훈의 뜻을 바로 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백**제 문화하면 남성적인 고구려 문화와는 달리 여성적인 것으로 말하고는 한다. 물론 기세(氣勢)가 흐르는 고구려 문화와는 달리 백제의 그것에는 온화한 기품이 감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문화적 성격과 사람들의 기질은 풍토의 영향을 받는 법이므로 이와 연관지어 살펴 보고자 한다.

백제의 공간적 범위하면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우선 떠올리게 된다.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무대로 해서 성장하였다. 이곳은 굴곡이 많은 복잡한 리아시스식 해안을 끼고 있다. 그러니 일찍부터 항만이 발달하여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다. 자연 백제인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드넓은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빼어난 조선술을 가졌던 동시에 바다를 잘 이용할 줄 알았다. 서해의 거친 파고(波高)를 헤치고 나아가 중국대륙과 교섭을 가졌다. 그러한 백제의

해상력은 북중국  
의 강자(强者)인  
북위(北魏) 군대  
를 해상전(海上  
戰)에서 손쉽게  
격파할 정도였다.

## 백제 문화의 기반과 그 세계관



이 도 학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또 백제인들은 일본열도로도 진출하였다. 일본열도 곳곳에 그 체흔(體痕)을 지금까지 남길 정도로 진취적이며 개척자적인 기개를 가졌다. 백제인들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인도지나반도와 인도대륙에 이르는 거대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기까지 했다. 성왕대의 승려 겸익은 뱃길을 이용해서 중인도(中印度)에 들어가 불경을 가지고 왔었다. 백제는 메콩강 유역에 소재했던 지금의 캄보디아인 부남국(扶南國)과도 교역을 했다. 무녕왕릉에 부장되었던 무티사라 구슬은 원산지가 태국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넓은 세상을 호홉하면서 개척자적인 기상을 가졌던 백제인들이 만든 문화가 전통시대 여성의 이미지에 비견될 수는 없다. 세간에서 여성적인 문화 일변도로 보는 것은, 세련된 기품(氣稟)을 단선적으로만 보는 안목의 불비(不備)를 말하는 게 아닐까?

백제 영역은 한반도에서는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를 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해안과 평야를 끼고 있어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였다. 게다가 사람 살기에 좋게끔 기후마저 온난다습하였기에 자연 인구가 물리치게 되었다. 국력은 자고로 경제력과 인구를 가지고 논하는 법이다. 저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옹이 삼국 가운데 백제가 가장 강성하였다는 평을 내린 것은 실로 타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백제 말기의 인구인 76만 호(戶)는 같은 시기 고구려의 69만 호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서』라는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백제 땅에는 “중국인과 신라인 그리고 고구려와 왜인까지 거주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곳에 살고 싶은 ‘동아시아 세계의 이상향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백제 땅에는 낙타와 양까지 서식했을 정도로 동아시아의 모든 물산과 주민들은 백제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넉넉한 토대 속에서 일도양단식(一刀兩斷式)의 고구려인들과는 달리 백제인들은 느긋한 심성을 가지게 되었다. 백제인들은 고루함과 편견이라는 배타적인 의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기에 무덤이 지닌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무녕왕릉은 성금 중국 남조의 묘제를 채택하여 조영되었던 게 아닐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핏발이 선 황산전투에서, 그것도 자신의 처자식을 베고 나온 계백이지만 남의 자식인 신라 화랑 관창을 살려주고 있다. 이러한 어진 심성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라는 넉넉한 풍토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그 반면에 적석총을 비롯하여 사회제도 전반에는 좌우현왕제(左右賢王制)와 같은 북방적인 문화 요소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백제의 기원과 관련한 것이었다. 여하간 북방과 해양적인 문화체험을 통해 백제인들은 광활한 세계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편벽되지 않은 균형잡힌 심성을 기르게 되었기에 따스한 체온이 감도는 문화를 남길 수 있었다.

고대국가는 왕실의 혈통을 하늘과 연결짓고 신비화시켰다. 그러므로써 초월적인 권위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백제는 왕실의 족원(族源)을 온조나 비류를 뛰어넘어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東明王)과 결부시켰다(고구려 시조는 동명이 아닌 주몽이다). 동명왕의 '동명'은 문자 그대로 태양이 솟아나는 '동쪽의 밝음' 곧 광명(光明)을 가리킨다. 백제 왕자(王者)는 태양의 후예라는 선민의식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는 일본측 문헌인 『속일본기』에서도 뒷받침 된다. 백제 시조인 도모대왕(都慕大王=동명왕)에게 '일신(日神)' 곧 태양신이 강령(降靈)하였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제가 자국 왕실의 연원을 성좌(星座)의 으뜸이자 중심인 태양에서 찾았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다름 아닌 백제가 세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천손국(天孫國)이라는 자부심의 산물이었다. 그 상징적 표상이 세계수(世界樹) 형상을 도검화(刀劍

화)한 칠지도(七支刀)였다. 세상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는 우주목(宇宙木)인 세계수는 그 가지가 사방수천 리에 뻗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국왕을 축으로 한 왕권의 사방 확대를 상징하는 성구(聖具)가 이것을 형상화한 게 칠지도였다. 칠지도가 제작된 해인 369년 겨울에 근초고왕은 한강 남쪽에서 전 장병이 중앙을 의미하는 황색(黃色) 기치를 필력하는 가운데 사열(查閱)을 받았다. 백제 국왕은 자신의 통치권역(統治圈域)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자부심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백제의 이같은 증원 의식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역시 369년인 『일본서기』신공(神功) 49년 조에 보이고 있다. 백제는 노령산맥 이남의 마한세력을 '남만(南蠻)'이라는 멸칭으로써 일컬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남만은 동이·서용·북적과 더불어 중국적인 천하관에서 나온 호칭이었다. 백제는 이것을 원용하여 자국 중심의 우월감 속에서 주변 종족과 국가들에 대한 사방 오락케 호칭을 설정하였다. 그랬기에 「무녕왕릉매지권」에서 백제 국왕의 사망을 천자(天子)의 죽음에나 쓰는 '붕(崩)'자를 사용하였다. 6세기 초에 중국의 양나라에서 작성된 「양직공도」에 의하면, 신라를 비롯하여 가야 나라들이 '백제 곁의 소국(小國)'으로 열거되어 있다. 백제는 이러한 위성국들의 정점(頂點)에 군림하면서 자기 중심의 소우주관(小宇宙觀)을 확립시켰다.

백제의 자부심은 일찍이 다산 정약용이 지적했듯이 고구려를 압도하는 강력한 국력의 소유와 더불어, 광활한 동아시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얻어진 세계관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겠다. 넓은 세상 속에서, 그것도 그 한 복판에 백제는 군림하며 호령(號令)하였던 것이다. 역사서에 적혀 있는 '홍(薨)'이 아니라 '붕'을 사용하는 황제의 국가였다. 이것이 새로 밝혀진 대국(大國) 백제의 참 모습이 되겠다. 백제 문화의 우수성은 궁지의 산물이었다. ㉔

## ‘입체형’ 민속액자 만드는 에덴상공사 박사도 회장 나이 겨우 80 “문화상품은 시작이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내가 ‘벚꽃’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주도 왕벚꽃이 자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화가 됐을 수도 있던 꽃 아닙니까?”

한국의 풍속화를 소재로 민속액자를 만든 에덴상공사 박사도 회장(79)은 문화상품 개발 동기를 묻는 첫 질문에 엉뚱하게도 벚꽃 이야기를 꺼내며 일제치하로 거슬러 올라갔다.

왕성했던 박씨의 집안은 일제에 의해 풍비박산나는 아픔을 겪었다. 오죽하면 후세들이 가족의 고난사를 알고 주장을 펴다 또다시 화를 당할까봐 족보까지 태워야 했을까? 박용 역시 고아원에서 독학을 하며 자라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사만이 아니라는 게 박용의 생각이다.

“아직도 일본 잔재가 ‘쇠뿔’처럼 박혀있어요.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일본 잔재 깨뜨리기 위해 회장 사업

박용이 에덴상공사를 창업한 것은 해방되고 한달여가 지난 45년 10월 1일. 그의 나이 23세가 되던 해였다.

박용은 “일본의 잔재를 깨뜨리기 위해 회장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해를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가장 무서운게 심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일곱 번이나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오투기 인생같은 박용은 만 56년동안 벼심을 갖고 모표·배지·바클·견장등 휘장을 만들어 왔다. 옛 휘장철을 들춰 보는데 경북고·덕수상고·동덕여고등 학교명이 새겨진 누런 빛의 옛 고교 배지가 눈에 들어온다. 아마 이 학교 출신들이 보면



△ 박사도 에덴상공사 회장

학창시절 자신의 가슴에 달았던 배지가 박용이 만들었다는 그 ‘새로운 사실에 감회를 느낄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배지 장사’라는 말로 국한되는 것을 싫어 했던 박용은 98년 8월 단원 김홍도·혜원 신윤복 그림을 입체로 담은 민속 액자를 개발했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호돌이 등을 소개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 몰두한 박용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국위도 선양하고 외화획득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상품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에 ‘입체형’ 민속액자를 만들었다.

이 민속액자는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이 평면이 아닌 입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민속화를 본떠 금형으로 제작한다. 그런 다음 흑니켈로 도금하고 열처리를 거쳐 알루미늄판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무동’ ‘서당’ ‘씨름’ 등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비롯, 초여름의 단오날 산골짜기서 떡감을 여인들을 훑쳐보는 동자들을 담은 ‘물놀이터’, 양반과 기생이 못가에서 가야금을 타고 겨앉는 ‘연당야류(蓮塘野遊)’ 등 신윤복의 풍속화, 그리고 농악놀이, 왕궁수비대 등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림으로 볼 때 보다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대한문을 지키고 서 있는 왕궁수비대는 박용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본 따 만든 것이다.

액자의 종류에 따라 출하가격이 1만4천원짜리와

1만원짜리 두종류가 있다.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엔 유통마진이 붙어 3만원 안팎이다.

“심벌은 집안의 문패나 다름 없습니다. 문화의 상징이죠. ‘불량품’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 망신살이 뻗힌 일이죠”

### 65년 대한회장공업협동조합 세워

개인적으로 회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박용은 ‘배지 장수가 될 협동조합 만드느냐’는 주위의 편견과 폄하를 무릅쓰고 오랫동안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65년 대한회장공업협동조합을 창설하는 대역사를 세운다.

나이 80에도 청년처럼 일하고 있는 박용은 조만간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판매·유통체계도 합리화해나갈 생각이다. 장남인 박소원씨(56)가 사장으로서 아버지 박용을 도와 현장을 뛰고 있다.

제14회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는 박 사장의 이름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외국 사람들이 뭘 찾나? 우리가 뭘 만들어 팔 것인가? 항상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말을 토해내던 박용은 한마디 더 거들었다.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내일 모레가 ‘미지수’ 예요. 별안간 아침 저녁에 뜰 수도 있고...”

그러나 ‘22년 개띠’ 박용의 목소리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찌렁찌렁하게 울렸다. 

### 박용이 만드는 문화상품들

민속액자. ‘무동’ ‘서당’ ‘씨름’ 등 김홍도의 풍속화를 비롯, ‘물놀이터’ ‘연당야류’ 등 신윤복의 풍속화, 그리고 농악놀이, 대한문을 지키는 왕궁수비대 등. 액자에 따라 출하가격이 1만4천원·1만원 두종류가 있다.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엔 유통마진이 붙어 3만원 안팎이다.



## 제1회 면천진달래 축제 기획한 이인화씨

# “진달래엔 한국인의 삶이 몽땅 들어있어요”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두**견주 하면 떠오르는 면천. 면천은 당진군의 12개 읍·면중 가장 작은 면이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면천군 당진현이었는데 공동체 말살 정책으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당진군 면천면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곳에서 4월 14~15일 마을 주민을 비롯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관광객등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면천 진달래축제'가 열려 성황을 이뤘다.

언제나 명화 뒤에는 명감독이 있는 법.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명감독'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인화 축제집행위원회 총무기획국장(36·당진계성초등학교 교사). 13년째 초등학교서 교편생활을 해오고 있는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다들 고개를 가로짓는 진달래 축제를 기획한데 이어 주민과 유지들을 좇아다니며 설득해 한마당의 순박하고 질퍽한 잔치로 연출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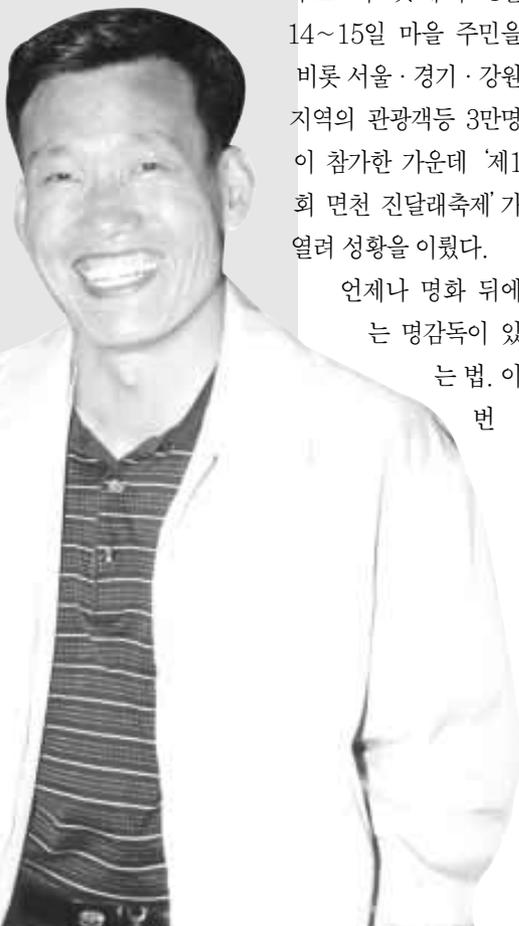
무엇보다 축제의 테마를 꽃이 아닌 민속에 맞춰 주민들의 단합과 위안에 힘썼고 386세대답게 개회식때의 단체장 인사말도 과감하게 멀티큐브로 대체함으로써 축제 본연의 의미를 되살렸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영랑'이란 인형과 함께 전통 진달래 국수와 진달래 약과·진달래 감주도 내놓아 축제를 풍성하게 꾸몄다.

### 초등학교 교사...7년째 진달래 심어와

그러나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7년째 진달래를 심어 오고 있는 그의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향이 공주인 이씨가 당진 면천에 진달래를 심어보자고 나선 것은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89년 면천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대학시절부터 민속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면천이



진달래술인 두견주의 고향이자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卜智謙)의 병 또한 진달래로 고쳤다는 전설에 끌렸다.

면천 두견주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복지겸이 원 인모를 중병을 앓아 식읍(食邑)으로 받은 면천에 낙향해 요양을 했으나 병이 점점 깊어져 그의 딸이 면천의 영산 아미산에 올라 백일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백일째 되는 날 산신령이 홀연히 나타나 “아미산 진달래 꽃을 따다 찹쌀과 안샘물로 술을 빚어 백일을 두었다가 드리고 은행나무를 너희 집 두 그루 심어 정성을 드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견주의 고향 면천은 유명세와 달리 산불과 간벌등으로 인해 진달래가 많지 않아 하는수 없이 이씨는 공주에서 진달래 3천그루를 구입해다가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면천~당진읍간 도로변에 심었다. 주민 30여명과 함께 진달래 심는 모임인 향진회(향토발전진달래회)도 조직해 추가로 1만그루를 더 심었다.

그러나 이듬해 1만 3천그루 대부분이 도로 화단을 정리하는 예초기에 의해 풀과 함께 싹둑싹둑 잘려 나가고 만다. 이같은 관리소홀에 한동안 분개하기도 했던 이씨는 도로변에 심는 것을 포기하고 12곳에 진달래 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씨는 진달래가 복지겸에 얽힌 전설에도 나와 있듯이 효사상을 위한 좋은 교육 소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천식이나 담을 치료하는데도 탁월한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은행나무를 집앞에 심으라고 한 것 역시 진달래와 마찬가지로 천식이나 담에 효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씨는 “아마 복지겸이 천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지금 면천초등학교 앞에서 있는 그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둘째가 셋째 아름다리나 되는 거목들로 매년 10가마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은행이 열린다.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도 특산물로 선보여 인기를 끌



었다.

이씨는 다른 지역 출신이 일을 벌이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타감과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 뭘 아느냐’는 폄하때문에 설움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달래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 지금은 주민 1인 1그루 심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기가 심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의 노력 때문에 당진군의 군화도 개나리에서 진달래로 바뀌었다.

### “세계적 축제로”... 진달래 음료도 특허출원

“진달래엔 한·사랑·이별·슬픔·봄·아름다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삶 자체가 몽땅 들어있는 거죠. 두견화와 연관되는 두견새 역시 남

의 집에 알을 낳고 자기가 새끼를 키우지 못하는 한 스러움에 피가 터지도록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견새가 구슬피 울면 그 해 진달래 빛은 더욱 진해 진다고 하구요”

지난 99년말 제14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한 이씨는 “민속이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깨지고 마는 것”이라며 “지금의 민속행사를 보면 속에 든 의미는 간데없고 빈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평했다.

이씨는 하루 24시가 부족하다. 방과후에는 축제를 기획하거나 향토사를 연구하고 또 1주일에 두번은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하루 일과를 묻자 그의 독특한 생활 습관이 나온다. 9시 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이라고 하기에 이른 2시 30분에 기상한다.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뒷동산’인 몽산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거나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방학도 그에겐 바쁜 날이다. 방학이 끝나면 책 한권이 나온다. 틈틈이 집필한 책이 ‘당진의 민간신앙’ ‘인간 상록수 김상현’ ‘당진 향토전래민요’ 등 13권에 이른다.

그리고 이씨는 현재 진달래 음료수를 상품화할 계획이다. 이미 진달래 음료 3종을 특허출원중이다. 민속연구가인 그가 이처럼 특허출원까지 낼 만큼 진달래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큰딸 하경(5)이에게 민속조사 중 마을 어른들로 부터 들은 얘기대로 진달래에 꿀을 재어 먹인 결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체험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씨는 당진군의 2백47개 리의 마을지 발간을 자신의 평생 숙제로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숙제는 면천진달래축제다. “당진에 계속 살게 되면 진달래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놓고 싶습니다. 민속 신앙이 재현해 내지 못하는 우리것을 진달래만은 얼마든지 재현해 내거든요”

‘나만의 인터넷 방송국 만들기’  
‘채널인(www.channelin.com)’을 만나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국의 아파트’라 할 수 있는 ‘채널인’은 일반인들도 방송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는 업체다. 채널 보유자는 자신이 촬영하거나 편집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물론 뉴스나 프로파일·BBS·추천메일 보내기등의 코너를 자기 나름대로 꾸려가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채널이 5월 15일 현재 3백71개이고 4백44개도 곧 오픈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회사 김정기 대표(36)는 지난해 1월 7일 선후배들과 뜻을 모아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 채널인을 설립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지만 문화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자는 생각에 테헤란 벨리가 아닌 혜화동에 둥지를 틀었다.

대학을 나온 후 대형 문고와 웹솔루션 업체에서 근무하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도 한 김씨는 “일방적으로 뿌려지는 기존의 방송이 아닌 쌍방향성이라는 인터넷 속성을 잘 살린 미디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미디어라는데 컨셉을 맞췄다”고 말한다.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성능 디지털 캠코더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채널인’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방송내용도 뉴스 시사, 문화 건강, 영화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경제, 지역 정보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업도 10대 초등학생서 부터 68세 디자이너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폭 넓다.

개인 인터넷 방송국 만들어주는 김정기 채널인 대표

## “전통문화도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해야”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동영상 매니아들에게 e-카페로도 유명하다. 수백 만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편집장비를 1시간당 일반인 5천원, 회원 3천5백원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

또 채널인은 4명의 PD로 구성된 자체 프로덕션을 가동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용량의 서버와 고속 회선을 기반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벌여나가고 있다.

최근까지 영풍문고와 손잡고 이문열·황석영·신경숙·안도현등 국내 유명 저자 30여명을 인터뷰한 후 영풍문고와 채널인 사이트에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 티켓 예매 사이트와 함께 연극 프리뷰 코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씨는 “동영상 콘텐츠 수가 무려 8천5백여개에 달한다”며 “앞으로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 방식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 제작과 컨설팅도 병행해 나가는데 한편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과 공동으로 동영상 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동영상과 전통문화의 접목을 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씨는 “전통문화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며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항상 숨어있어야 하고 항상 품격 있어야 하는 전통문화가 아닌 생활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바꾸는데 동영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문**



△김정기 채널인 대표

# 저작권 등록,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

## 저작권 등록이란?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의 창작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우리의 문화 산물로써 재산적 가치가 높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국가의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저작물의 존재를 널리 알려 그 이용을 촉진하고, 또한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 저작권 등록, 언제 필요합니다.

### ❶ 법적 추정력 부여로 소중한 권리와 명예 보호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남들이 '무단 이용' 할 때 침해자를 고소하여 국가가 처벌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사항을 밝히는 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은 물론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되어 더욱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등록하면 이러한 등록 제도의 뒷받침 아래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❷ 등록공고, 홍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

발행되거나 공표되지도 않고 사라지는 저작물도 매우 많습니다. 세상에 알리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작권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자신의 저작물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정보를 등록공보는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도 올려, 관심 있는 이용자가 저작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이보다 편리한 세상이 또 있을까요? 굳이 홍보 비용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저작자 및 이용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층 덜어 줄 것입니다.

### ❸ 법적 대항력을 담보한 안전한 저작물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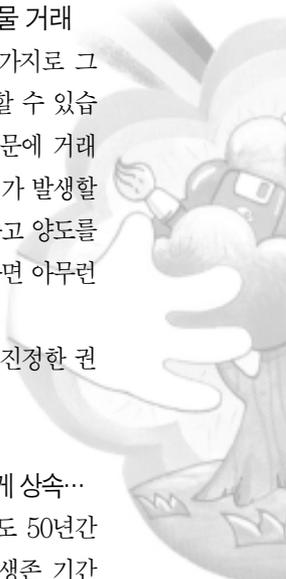
저작권도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수익·처분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무형적인 특징 때문에 거래 관계에서 이중양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돈을 주고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이를 등록해야만 진정한 권리자로 법에서 인정하는 까닭입니다.

### ❹ 한번의 등록으로 사후 50년! 후손에게 상속...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적어도 50년간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인접물이 처음 '실연', '고정' 또는 '방송' 된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나 출판권 등 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등록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법인 등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것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 ① 독창적인 작품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문자로, 숫자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표현' 할 수 있고, 그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작업할 영화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스케치도 훌륭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연극 등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도형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10. 편집저작물
11. 2차적 저작물

\*이러한 분류는 단지 편의적인 것입니다. 만화나 캐릭터, 게임 등도 등록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② 출판권도 등록을 하면 권익 보장에 유리합니다.

많은 저작물은 인쇄 형태로 출판됩니다. 이러한 출판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계약이 출판권 설정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거한 설정 출판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③ 저작인접물도 등록 대상

저작권법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인접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에는 연기나 더빙, 노래나 연주 등의 '실연', 소리를 담은 '음반',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있으며, 이들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록을 위한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가 따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 1회 납부로 최소 50년간 등록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30,000원

▶저작재산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40,000원

▶주소 등 등록사항 변경등록:3,000원

▶등록부의 사본 교부 및 열람 신청:1,000원

##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오세요.

등록신청서의 작성과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바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4일안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저작권등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없으면 즉시 접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내용을 등록장부에 기재한 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법 제81조에 의거, 1987년 7월1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등록은 물론, 저작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와 분쟁 조정,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저작권 법제의 발전과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수락산 산행,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

류장수 편집주간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국 직원일동은 지난 5월 2일 문화관광부예술국의 체육대회 일정에 맞추어 의정부시 수락산으로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이수홍회장과 안진수 사무총장을 위시한 사무국 전직원과 2001지역문화의해 추진위 이종인 상임위원이 장암역(7호선지하철 종점)에 모여 수락산 산행을 실시했는데 의정부문화원 허인규 사무국장의 안내로 조선시대 실학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유적을 답사하는 기회도 가졌다.

박세당은 반남박씨로 현종1년 중평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예조좌랑·병조정랑·지평·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을 지내고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당쟁에 혐오를 느껴 40세의 나이로 관직을 물러나 의정부시 장암동(당시 양주군 석천동)에 첩거하며 직접 농사를 짓고 후학을 지도하였는데 수락산 자락 장암동에는 그의 고택을 비롯하여 궤산정, 청풍정, 노강서원 등 유적들이 남아 있다.

## ▶박세당 고택(朴世堂 故宅)

경기도 전통종가로 지정된데 이어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3호로 지정된 박세당 고택은 선생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집필하면서 농사를 짓던 옛가옥이다. 그러나 6.25 때 대부분이 소실되고 지금은 바깥 사랑채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건물은 부분적으로 현대식 건물로 세워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서계선생의 대표적 저서로는 농사에 관하여 쓴 「색경(穡經)」과 고전연구에 관한 「사변록(思辨錄)」이 있다.

## ▶궤산정(黃山亭)

서계선생이 은퇴후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담론하던 곳으로 수락산 계곡의 천연암석을 주춧돌로 삼아 지은 목재 초가 육각정 정자였다. 그러나 원래의 정자는 없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기와집 정자를 지어 놓았다.

정자를 중심으로 뒷편에는 고택이 있고 주위에 그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 느티나무들이 지금도 무성히 자라고 있다. 정자 아래쪽 바위에 石泉洞, 西溪幽居, 勝髯臺라는 서계선생의 친필이 음각돼 있다.

## ▶청풍정(淸風亭)

청풍정은 노강서원 아래에 있는 정자인데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서계 박세당 선생이 생육사 중 한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을 추모하기 위해 청절사를 짓고 그 앞에 청풍정을 세워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남아있는 주춧돌의 크기는 높이 90cm, 아랫폭 60cm, 윗폭 38cm 정도이며 모두 4개로 돼있다. 주춧돌간의 거리는 가로 2.2m 세로 2.4m 정도인 것으로 보아 정자의 면적은 1.6평 정도로 추정된다.

박세당은 반남박씨로 현종1년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예조좌랑·병조정랑·지평·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을 지내고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오기도 했으나 당쟁에 혐오를 느껴 40세의 나이로 관직을 물러나 의정부시 장암동(당시 양주군 석천동)에 칩거하며 직접 농사를 짓고 후학을 지도 했는데 수락산 자락 장암동에는 그의 고택을 비롯해 궤산정, 청풍정, 노강서원 등 유적들이 남아 있다.



△ 서계 박세당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



△ 매월당 김시습을 기린곳. 계곡 바위에 쓰여진 '수락동천(水落洞天)'이란 글귀는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정자 아래쪽 계곡 바위에는 水落洞天이라고 음각된 초서 글씨가 남아 있는 데 이 글씨는 매월당이 전국을 유랑할 때 수락산에 들러 머물면서 남겨놓은 친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 ▶노강서원(鷺江書院)

노강서원은 조선조 숙종 때 문신 문열공(文烈公) 박태보(朴泰輔)를 모신 사당이다. 문열공은 서계 박세당의 아들로 24세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680년 홍문관교리·이조좌랑·과주목사 등을 지냈다.

1689년 장희빈으로 인한 인현왕후 폐위(기사환국) 때에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다 국문을 당하고 진도로 유배도중 노량진에서 장독이 악화되어 죽었다. 장희빈의 간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박태보는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문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문열공을 위해 노량진에 노강서원이(1695년) 건립되었는데 6.25때 불타 없어진 것을 후손들이 1977년 지금의 장소에 옮겨 세우고 1977년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수락산 산행과 문화유적 답사를 끝낸 일행은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집에 모여 보신탕과 닭요리(백숙)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한영 의정부문화원장과 이영철 도봉문화원장이 합석해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하루를 즐겼다.☞

## 실록속의 천안인(下)

상권에 이어 두번째로 출간된 책이다. 하권에는 선조실록 115권에 나오는 김치부터 철종실록 1권의 강노까지 12명의 인물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발췌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김치·황박·유활·김호·박자응·김지중·황중해·김득신·곽시징·유언민·민기세·강노 등이다. 국배판 456면. (천안문화원)

##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이천시 호법면

경남대학교 학술조사단(단장·홍순석)과 이천문화원이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이천시의 의뢰를 받아 호법면의 문화유적과 민속자료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이천시지 발간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백사

면·울면·설성면·마장면·부발읍·장호원읍·신둔면을 조사한바 있다. (이천문화원)

## 국역 조선환여승람(남원)

조선환여승람의 윤용구·민경호 두 사람의 서문과 목록을 구해 신희고 조선지리 총설, 전라북도 지리 총설, 김윤환·이병연·안정여의 발문까지 구해 완벽을 기했다. 조선환여승람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이병연이 편찬한 지리지다. 뒷면에는 원문을 영인해 실었다. 국배판 296면 (남원문화원)

## 제4회 학술회의 논문집 향토인물연구

백현 이경석과 금릉 남공철에 대한 인물연구 학술회의 원고를 단

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위 두 인물은 성남지역과 연관이 있는 역사인물인데 성남문화원에서 1999년 10월 14일 제4회 학술회의를 개최, 사계의 학자를 초청 두분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성남문화원)

## 鐘路文藝 (창간호)

“좋은 글을 접하게 될 때면 상쾌한 공기를 실컷 들이마신 기분을 느낀다. 우리 구민에게 그런 기회를 만끽할 수 있게 문예지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는 당부와 함께 문학단체장 권두시, 한국문학사를 빛낸 작고 종로문인 특집, 종로문예광장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전문 문인작품과 아마추어 작품이 함께하고 있다. (종로문화원)

## 부천향토자료집⑤ 부천의 궁시(弓矢)문화



우리나라 활에 대한 것을 망라한 책이다. △한국의 활 △활의 제작과 관리 △궁도(弓道) △활을 만드는 부천사람들 △부천의 죽시(竹矢)와 사정(射亭)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천공방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된 궁시장의 명예를 계승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그 역사와 내역이 기록돼 있다. (부천문화원)

## 國譯 大麓誌

“대록지는 1779년 안정복이 편찬한 지리지인데 1817년 조국인이 증보하여 간행한 목천현(木川縣)의 지지(地誌)를 말한다. 대록지에 의거하면 당시의 관할구역은 천안의 동부지역에 해당된다.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 조성민문화원장의 설명이다. 한문으로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국배판 476면 (아우내문화원)

城南文化研究 (제5권)

동서울대학 백남옥 교수의 '삼국 전성기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과 신구대학 전보삼 교수의 '남한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안에 대하여' 등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성남문화원이 향토사연구 차원에서 부설 향토사연구소와 공동으로 간행했다. 국배판 288면. (성남문화원)

國譯 靜一堂 遺稿

강정일당은 조선시대(1772~1832) 여류문인으로 진주 강씨 집안에서 자라 파평윤씨 집안으로 출가한 분이다. 강정일당은 문장에 뛰어났을뿐 아니라 현묘양처로 효성도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다. 이분의 유고를 국역하여 성남문화원이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앞쪽에 원문과 번역문을 싣고 뒷쪽에 진주강씨 보첩(정일당 직계)과 정일당 유고 원본을 영인해 싣고 있다. (성남문화원)



**임꺽정 ·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양주군과 양주문화원에서 공동으로 출간한 '임꺽정 · 김병연(김삿갓) 태생지 고증 학술 보고서' 이다. 태생지 고증위원회는 군의 용역을 받아 양주 · 영월 · 철원 · 용인 등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고 문헌기록들을 검토해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고증위원회는 '차후 몇가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양주문화원)

**제천시 오티(五峙) 별신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창식이 서술하고 제천문화원이 발간했다.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는 공동체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들은 별신이 드는 해에 오티별신제를 지낸다. 이 별신제는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충청북도지방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다. 이 책에는 오티별신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제천문화원)

城南文化研究 (제7호)

성남문화원의 향토문화 연구는 문집이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천임산봉수의 연혁과 위치' '조선후기 금릉 남공철의 정치운영론', '남한산성의 문루 · 누정 · 사찰 등의 명칭에 대한 소고', '근현대 성남의 역사시론', '성

남 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 정신 원형', '가칭 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의 연구계획' 등 6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성남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 문화원소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국문화원장 연수회

전국문화원연합회는 5월 23~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문화원장연수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 13~15일에는 경남 창원부곡파크관광호텔에서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연수회를 연다. (관련기사 8면)

## 서울특별시

### 서울시지회

### 2001년도 제2차 원장정례회의 및 간담회

서울시지회는 5월 4일 경기도 대부도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서울시내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제2차 원장 정례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강남문화원

### 제3회 강남미술대전

강남문화원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3회 강남미술대전 참가 작품을 공모했다.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2001년 역사문화탐방기행

▷일시 : 5월 4~20일  
▷장소 : 경주 및 명승지

### 제409주기 동래임진의총제향 봉행

▷일시 : 5월 8일

▷장소 : 동래금강공원내 동래임진의총현지

## 대구광역시

### 대구북구문화원

### 아카데미청소년관현악단 초청 공연

▷일시 : 6월 16일 (토) 19:00  
▷장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제1기 북구문화유적탐험대원 모집

북구문화원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이로 거듭나고 문화유적탐험 활동과 이론학습활동을 겸비할 '제1기 북구문화유적탐험대원'을 40명 모집했다. 이들은 1년 동안 탐험대원으로 매월 2회의 정기모임(1회-탐험/1회-이론)을 갖는 한편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이론공부를 겸비하며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활동기간 : 6월~2002년 5월 (1년)

▷참가자격 : 초등학교 3학년이상 남·녀

### 제2회 경북도전·신라미전 역대대상수상자전

북구문화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상북도미술대전과 신라미술대전의 역대 대상수상자들 한자리에 초청해 친목과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년에 이어 두번째로 경북도전·신라미전 역대 대상수상자전을 6월 5일부터 17일까지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한국화와 서양화부문의 대상자로 경상북도미술대전 역대 수상자인 서무진, 박해동, 이동록, 남충모, 천광호, 곽동효, 김영구, 김강록, 김영제 씨와 신라미술대전 역대수상자인 김중의, 남학호, 남효성, 김호교, 장재규, 장이규, 이영철, 유창호, 명동수, 이종구, 권영욱, 예진우, 이현희씨의 15호 내외 작품 1점씩을 선보인다.

## 달서구문화원

### '봄·봄·봄展'

대구 달서문화원은 5월 2일부터 12일까지 푸른방송갤러리에서 '봄·봄·봄展'을 개최한다.

## 인천광역시

### 강화문화원

### 2001 제2회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

▷일시 : 4월 18일  
▷장소 : 강화산성 (남문~서문)



**광주광역시**

**광주동구문화원**

**제4회 무등산 철쭉꽃 큰잔치**

광주동구문화원은 지난 5월 13일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 철쭉꽃 큰 잔치를 열었다.

**광산문화원**

**문화유적지답사**

▷일시 : 5월 21일

▷답사지 : 광산문화원 출발 (08:30)→진도대교 울돌목(이순신장군 해전현장)→운림산방→임해면 남도석성→영등축제(뽕할머니 비)→진도출발→나주반남고분→광산문화원 도착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회**

**'문화유산해설사' 25명 양성**



국내의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양성되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는 최근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계획'이 각 지자체관광단체에 시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0명의 신청자중 남자 12명 여자 13명 등 25명을 선발하고 3개월간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5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4시간씩 총16주 128시간(소양이론 교육 8주 64시간, 현장학습 8주 64시간) 동안 교육을 마친후 9월부터 대전을 6개권역으로 나눠 실전에 배치된다.

**서구문화원**

**제6회 갑천문화제**

대전서구문화원은 지난 5월 12~13일 갑천 잔디광장과 샘머리공원에서 제6회 갑천문화제를 개최했다. 첫날인 12일에는 갑천 잔디광장에서 구석기시대 등 역사의 변천사를 재현하는 '선사시대여행'과 갑천수신제, 보막이놀이, 기우제, 한복패션쇼, 서구풍물단의 농악, 한국고전무용반의 고전무용, 민요합창단의 민요한마당등 다채로운 전통행사가 겹쳐져 즐겁고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했고 한편 KBS 인기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샘머리공원에서 초·중·고 일반인 1300여명이 참여해 글솜씨를 자랑했다. 올해로 7회째인 샘머리 백일장은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각부문에 고르게 호응을 보였으며 가족단위의 참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운문부문의 글제는 '잔디밭', 산문부문의 '뛰는사람'이라는 글



제를 가지고 작품을 접수했는데 한정된 시간안에 이미 주어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작품이 많이 선보였다. 산문부문의 장원은 대전둔산중학교 박다현 학생의 '뛰는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차지했고 운문부문의 대전동산고등학교 이지호 학생의 '조용히 자라나는 잔디밭'이 장원에 당선됐다.

# 문화원소식

## 경기도

### 동두천문화원

#### 김승록선생추모제

▷일시 : 5월 10일

▷장소 : 결산동 김승록선생 묘

▷참석대상 : 보산분원 및 동두천문화원 임직원

#### 제13회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 : 5월 16일

▷장소 : 소요산 야외음악당

▷참석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부모님과 함께하는 향토유적답사

▷일시 : 5월 22일

▷장소 : 관내 유적지 탐방

▷참석대상 : 관내 초등학교생과 부모님

####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일시 : 5월 26일



연천문화원

▷장소 : 시민회관 공연장

▷참석대상 : 동두천시 일반시민과 학생들

## 연천문화원

#### 제9회 연천 전국 구석기 문화제

▷일시 : 5월 4~5일

▷장소 : 전국리 선사유적지

## 가평문화원

#### 제2회 한석봉 선생 전국 휘호대회

▷일시 : 5월 13일

▷장소 : 가평중학교 체육관

#### 도립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일시 : 5월 18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내용 : 팝스 및 대중가요 연주

#### 청소년 축제

▷일시 : 5월 19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내용 : 청소년 가요 및 힙합그룹댄스 공연

#### 한국화, 카메라 100년사 전시회

▷기간 : 5월 13~20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연인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기간 : 6월 2~3일

▷장소 : 연인산 일원

#### 제3회 연인산 통일·풍년·번영

## 기원제

▷일시 : 5월 20일

▷장소 : 연인산 샘분지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홍상철 신임 사무국장

강원도지회는 5월 2일 신임 사무국장에 홍상철 전 동해문화원 사무국장(55)을 임명했다.

#### 이대근 신임 춘천문화원장

강원도지회는 최근 고경재 지회장 후임으로 이대근 춘천문화원장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 춘천문화원

#### 웹사이트 구축

춘천문화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8개월에 걸쳐 사이트(www.ccmunhwa.or.kr)를 개발했다. 23개 부문 3백50페이지에 이르는 이 사이트는 '춘천의 역사' '문화자료' '관광' '축제' '문화재' '안내지도' '관련사이트' '묻고 답하기' '계시판' '뉴스&이벤트' 'e-메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메일은 ccculture@hanmail.net

### 동해문화원

#### 전윤표 신임 사무국장

동해문화원은 5월 2일자로 전윤표씨(60)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정선문화원

**1/4분기 이사회의 개최**

- ▷일시 : 4월 10일
- ▷장소 : 문화원
- ▷내용 : 1/4분기 사업실적보고, 2/4분기 사업계획보고, 당면사항 협의

**향토사 연구위원회의 및 유적지 답사**

- ▷일시 : 4월 13일
- ▷장소 : 문화원 회의실, 신동읍 덕천리
- ▷내용 : 최복규 강원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장 초청 신동읍 덕천리 유적지 지표조사 실습

**선행어린이 표창**

- ▷일시 : 5월 5일
- ▷목적 : 5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을 맞아 효행심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어린이를 격려하기 위함.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10명 (교육청에서 추천)
- ▷시상 : 표창장과 부상(도서생 활권 5매)

**장한아버지 표창**

- ▷일시 : 5월 8일
- ▷목적 :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정경제를 꾸밈하게 이끌며 시부모님의 병환을 극진히 간호하고 이웃의 어

- 려운 일에 솔선봉사하는 아버지를 격려하기 위함.
- ▷대상 : 관내 6읍면장이 추천한 아버지 6명
- ▷시상 : 읍면 아버지 날 행사시 전달(표창장, 은수저 1벌씩)

**연극 노을풍경(의정부 한네극단)**

- ▷일시 : 5월 19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내용 : 어느 무료 양노원을 배경으로 한 노인의 애환을 담은 것으로 중년층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청소년에게는 가치있는 인생과 부모님께 대한 효의 마음을 심어주는 등 가정의 달 5월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극.

**가족 뮤지컬 양양 푸·뚜·꾸(극단 안데르센)**

- ▷일시 : 5월 20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관례식(冠禮式 · 성년예식)**

- ▷일시 : 5월 21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연주:모던 팝스오케스트라)**

- ▷일시 : 5월 25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정선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회의 및 유적지 답사**



- ▷일시 : 4월 13일
- ▷장소 : 문화원 회의실, 신동읍 덕천리 소동, 소사
- ▷내용 : 강사-최복규 강원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장, 신동읍 덕천리 유적지 지표조사 실습

# 문화원소식

## 충청북도

### 충주문화원

#### 제27회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

충주문화원은 지난 5월 24일 오후 1시 야외음악당(탄금대)에서 충주시 관내 초·중·고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27회 학생백일

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 2001 속리산법주사 사진촬영대회

▷기간 : 5월 20일  
▷장소 :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법주사

## 충청남도

### 천안문화원

#### '운초 김부용 추모제'

천안문화원은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황진이·매창과 함께 조선조 3대 여류시인 중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운초 김부용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를 올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천안문인협회·문화사랑문화가족·천안향토사연구소·한국차문화협회천안지회 회원 등 1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례·추모시낭독·경과보고 등이 이어졌고, 평론가인 윤성희 선생의 '운초의 시 세계' 조명 및 김성렬 향토사연구소장의 인물조명 등 한층 내용있는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또 추모제에서는 제례의 형태를 기존 제례에서 벗어나 육법공양 등 다례형식을 통해 문인을 추모하는 의미 있는 예법이 처음으로 시연됐다. 운초 김부용 추모제는 1974년 운초의 묘가 광덕산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운초를 추모하고 문학성을 조명하기 위해 197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문학행사다.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열린다.



## 청양문화원

#### 2001 문화회원 문화유적지 순례



청양문화원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전라도 일원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순례했다. 문화원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강기범 여주시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여수 해양박물관, 향일암들을 순례하고 다음날에는 영취산·지리산 쌍계사등을 순례했다.

#### 2001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2001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가 4월 14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청양문화원 이사와 회원등 2명이 표창을 받았다.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 고훈택(청양문화원이사·청우건축설계사무소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표창 : 한상봉(청양문화원회원·광명세차장 대표)

당진문화원

남산벚꽃축제 한마당

당진문화원은 4월 27~28일 당진 남산 게이트볼장과 당진문화원 광장에서 '남산벚꽃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운양문화원

작은도서관

▷일시 : 매일 오전 8~11시  
▷장소 : 운양문화원 작은도서관  
▷내용 : 청소년·일반인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매일 운영

전라북도

고창문화원

제25회 동백연

고창문화원은 5월 5일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 일주문 밖 잔디광장에서 제25회 '동백연' 행사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영암문화원

2001 어린이날 큰 잔치

영암문화원은 이고장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2001년



어린이날 큰 잔치를 5월 5일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백일장 대회 및 어울 민속놀이마당·전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조상들의 슬기와 놀이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영광문화원

법성포단오제 제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일시 : 6월 24~25일(2일간) - 예선 : 6월 24일(월), 결선 : 6월 25일(월)

▷장소 : 법성숲쟁이공원 제2특설무대

▷부문 : 무용, 농악, 판소리 부문(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명인부)

▷시상내역 : ●초등부-장원(교육부장관상), 차상, 차하, 장려상, ●중·고등부-장원(교육부장관상), 차상, 차하, 장려상, ●신인부-장원(문화관광부장관상), 차상, 차하, 장려상, ●명인부-장원(대통령상), 차상(국무총리상), 차하, 장려상

경상북도

포항문화원

문화원 등산교실 창립7주년 기념 문화교육

▷일시 : 4월 6일  
▷장소 : 보경사 야영장  
▷내용 : 향토문화교육, 민속놀이대회, 체력단련행사

경주문화원

주부교실 문화강좌

▷일시 : 5월 14~22일  
▷장소 : 문화원 강당  
▷대상 : 가정주부  
▷인원 : 120명  
▷내용 : 법과 사회생활, 음악의 조기교육, 생활조경, 여성건강과 성인병 예방, 21세기 여성의 역할, 메이크업, 고사성어 등

향토반 유적답사

▷일시 : 매달 1회(둘째주 일요일)  
▷대상 : 경주시민 및 문화원 회원  
▷인원 : 50명  
▷답사지 : 경주시내 유적지 답사

김천문화원

스물한번째 매계(梅溪)백일장

김천 출신으로 조선 성종때의 대학자였던 매계(梅溪)조위(曹偉) 선생을 추모하고 경상북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22회 매계백일장이 4월 26일 선생이 나고 자란

# 문화원소식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율수재(律脩齋)에서 열렸다. 김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창녕조씨문장공파대중회에서 후원한 이번 백일장에는 도내 48개교 1천2백여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조위 선생은 조선 성종때의 명문장가로 우리나라 유배(流配) 가사의 효시(嚆矢)로

평가되는 만분가(萬憤歌)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를 최초로 언해한 두시언해(杜詩諺解)를 완성해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 문경문화원

**일본 남성합창단 '그란포닉' 합동 연주회**

문경문화원이 운영하는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일본 남성합창단 '그란포닉(단장 미즈미즈 타이라)' 이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문경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합동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합동연주회에는 신영국 국회의원과 김학문 시장, 황운모 경찰서장, 조석원 교육장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일본 남성합창단 '그란포닉(GRAN-PHONIC)'은 수많은 대학 합창단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와세다(早稻田), 케이오기죽(麗應藝塾), 도우시샤(同志社), 관세이학원(關西學院) 대학의 글리클럽 OB로 나고야시(名古屋市)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여 '동서 4대학 OB합창단 토우가이'라는 이름 아래 연주활동을 해 오다 '그란포닉'이라 개칭했으며 회사 사장, 중역, 관리직, 공무원, 교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 약 4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합창단이다. 이번 한일 합동연주회를 가지게 된 동기는 지난해 문경시립합창단 제 26회 정기연주회 때 '그란포닉' 합창단원 두 사람이 우연히 연주회를 구경하고 민간차원의 음악 교류를 희망해 음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합동 공연에는 각기 자국의 애창곡을 열창했을 뿐 아니라 특히 '그란포닉'이 우리가곡

## 김천문화원

### 김천문화원 제10회 전통혼례식



김천문화원은 지난 5월 5일 김천시 어모면 아천관광농원 잔디밭에서 신랑 양승모군(28세, 미국로스엔젤레스 거주)과 신부 손순익양(27세, 김천시 부곡동)의 전통혼례식을 거행했다. 김천문화

원 정택 부원장과 이병탁 이사의 진행으로 거행된 이날 전통혼례식에는 양가 하객과 일반시민등 5백여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우리말에 서툰 신랑을 위해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난 이병탁 이사가 즉석 통역을 맡기도 하며 좌중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천문화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통혼례식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열번째 주인공이 탄생됐다.

‘고향의 봄’을 우리말로 합창하고 ‘자장가’를 소프라노 성은순과 테너 타나카 요시오 단원이 뚜엣으로 노래했으며, 도립국악단에서 ‘가야금산조’ 성금연류 및 ‘해금과 피아노’ 2중주를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곡 사랑해, 토요일밤, 손에손잡고, 꿈따리사바라를 우리말로 연합합창할 때는 청중들도 함께 노래해 연주회는 절정을 이루었다. 2부행사로 감사패 전달과 꽃다발 증정 및 상호 기념품교환과 축하케익 전달에 이어 삼폐인을 터트리고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한 후 꾸밈한 파티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마당이 됐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 ‘KBS열린음악회’

인기 TV프로그램인 KBS열린음악회가 KBS, 문경시, 문경문화원의 주최 주관 아래 5월 11일 저녁 7시 30분 문경새재 제1관 문 앞 잔디광장에서 태조왕건 출연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해졌다.

### 고령문화원

#### 문화원 여성회원 문화유적답사

▷일시 : 4월 18일 (수)

▷장소 : 강화도(고려궁지, 전등사, 강화역사관, 애기봉, 서해대교)

### 경산문화원

#### 경산-신안문화원 자매결연 조인



경북 경산문화원(원장 이원희)과 전남 신안문화원(원장 김상진)은 최근 경산문화원 강당에서 양 문화원 관계자와 경산시장 등 지역기관단체장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자매결연에 앞서 양 문화원은 지난해 신안문화원에서 회동을 갖고 자매결연에 따른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양 문화원은 이날 자매결연협정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임당동고분군, 압량유적지, 영남대박물관 등 경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둘러본 후 상대온천관광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만찬을 열고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자매결연에 따라 양 문화원은 앞으로 상호우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복지 증진과 동서회합에 기여하며 상호 이익을 증대하고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 문화원소식

## 문화원 남성회원 문화유적답사

▷일시 : 5월 10일 (목)  
▷장소 :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 일대, 안동 왕건촬영장



칠곡문화원

## 제4차 문화유적탐방

▷일시 : 4월 12일  
▷장소 : 충남 서산시, 예산군  
▷대상 : 칠곡문화회원 69명



울릉문화원

## 엄마와 함께하는 청소년예능경진대회

울릉문화원은 5월 30일 울릉읍

도동 2리 약수공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청소년예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모든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

▷일시 : 5월 11일  
▷장소 : 도동항 해변소공원  
▷공연방법 : 울릉군의 자연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감각에 걸맞는 음악 장르로 연주 때마다 관중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경상남도지회 문화원장 회의개최

경상남도지회는 5월 8일 도지회 사무국에서 도내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내용은 2001년도 도지회 주요업무보고 및 상반기 사업추진 협의를 논의하고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김종규 도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문화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종규 도의장의 협조를 받아 도내문화원장과의 매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문화원에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 마산문화원

## 제1회 마산시민회호대회

마산문화원은 5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마산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제24회 마산시민의 날 '가고파 큰잔치'를 경축하고 마산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서예인구져변화대를 위해 제1회 마산시민 회호대회를 개최했다.



## 제15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마산문화원은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마산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제24회 시민의날 '가고파 큰잔치' 축제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 제15회 전국 남녀시조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 문화원사 이전

마산문화원은 2001년 4월 17일 마산시 양덕동 477번지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1층으로 이전했다.

▷주소 : 마산시 양덕동 477 마

산공설운동장  
 ▷전화 : 293-1186~7  
 (FAX 293-1310)

통영문화원

연대봉 및 연대도 패총 답사

진해문화원

2001년도 진해문화학교 제20기 컴퓨터교육 수료식

진해문화원은 지난 5월 2일 (수) 오전 11시 30분에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문화원 이사 및 컴퓨터 수료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학교 제20기 컴퓨터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2회 진해시민 회호대회 입상작품 시상 및 전시회

▷일시 : 5월 8일

▷장소 : 진해시민회관 전시실

▷내용 : 진해문화원 제39회 군항제를 맞아 지난 4월 6일 진해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제2회 진해시민 회호대회를 개최해 입상작품 73점을 선정한다 이어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진해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김병로 진해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및 입상자·입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작품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상 1명(김중웅)에게는 진해시장상을, 우수상 3명(이갑래, 조영숙, 박영선)에게는 시의회 의장상·경찰서장상·교육장상을, 특별상 4명(김돌수, 주정언, 노봉순, 하영수)에게는 평통회장상·상공회의소 회장상·선양회 이사장상·예총진해지부장상을, 특선 15명(안순름 외 14명)과 입선 50명(조선자 외 49명)에게는 문화원장상을 수여했다. 전시회 기간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다.



김세운 통영문화원장을 비롯한 8명의 사적지 답사단은 4월 21일 향토사료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1시간거리에 있는 연대봉 연대도 패총을 답사했다. 연대(烟臺)라는 지명은 왜적의 침략에 대비해 산정에서 불을 피워 연기로서 위급함을 알렸던 연대가 설치된 섬 지명에서 유래했다.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에서는 연대의 설치 연대(年代)를 알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산정에는 잡목이 우거져 옛날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정도였으나 연대 바로 밑에는 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당산이 잘 정비되어 있어 대비적이었다. 연대도 패총은 산양읍 연곡리 24-17번지로 사적 335호이다. 답사단은 “밭갈 당시의 모습은 추측할 수 없으나 토기, 고려청자, 백자 등의 상당수 파편과 패각이 수도없이 널려 있어 보존관리가 절실”하다며 “연대를 소개하는 안내문 정도라도 설치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1년도 예술강연회

대한민국예술원이 주최하고 통영문화원이 주관하는 2001년도 예술강연회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통영시청 강당에서 김춘수 시인의 ‘나의 시작 과정(詩作過程)’이란 주제로 개최

# 문화원소식

됐다. 국내 예술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의 수준높은 전국순회강연회를 통한 지역 주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및 지역예술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강연은 통영 출신인 김춘수 시인이 나와 1945년도 창립한 통영문화협회와 선생의 무의시로의 전환과정을 연설하였고 강연말미에는 윤이상, 유치환 선생들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자고 말해 참석한 300여명의 지역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문화교류 조인 체결

통영문화원과 국제문화교류관계에 있는 일본 팔일시시 교육위원회와 문화교류조인식을 위해 통영문화원장을 비롯한 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11명과 한국무용단 5명이 5월 25일~28일 3박 4일 동안 일본 팔일시시를 방문했다.

## 제40회 도민체전

통영문화원 주관으로 통영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11~13)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통영문화마당에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다양한 축제를 펼쳤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 김해문화원

### 2/4분기 이사회의

▷일시 : 5월 9일  
▷장소 : 김해문화원 1강의실  
▷내용 : 김해문화원은 2/4분기 이사회의를 개최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업을 심의하고 새로 선출된 임원(이사 2명, 감사 2명) 상견례를 가졌다.

### 제40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고유제

▷일시 : 5월 10일  
▷장소 : 구지봉  
▷내용 : 김해문화원은 지난 5.11~13까지 3일간 통영·거제·고성에서 공동 개최된 제40회 경남도민체전의 성화를 채화하고 경남의 발상지인 구지봉에서 고유제를 올렸다.

### 모던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 대화와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일시 : 5월 23일  
▷장소 : 임호야외공연장

## 의령문화원

### 제1회 의령군민의날 및 제29회 의병제전기념 문화예술행사

의령문화원은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29회 의병제전(義兵祭典) 기념행사로써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18개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문화가족 작품 전시회와 향토출신 저명 서예가를 초청하여 가훈(家訓)과 좌우명(座右銘) 지어드리고 써드리기 특별행사를 개최했다.

## 남해문화원

### 제5회 남해문화의 날

▷일시 : 5월 21일  
▷장소 : 이락사(이 충무공 전물유터)

▽ 의령문화원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보훈의 달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흘려 싸운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동시에 그 유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국가가 지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 보훈의 달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맞물려 우리를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역사기술의 오류라기 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우리는 일본의 작태를 보고 울분만 터뜨릴게 아니라 이런때일수록 온겨레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민족의 자존을 굳건히 지키되 스스로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월간 우리문화는 일본에 항거 독립투쟁을 전개한 애국선열 중 문화인물로 선정된 분들의 공적을 재조명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그들의 거룩한 정신을 후대에 계승해 나라사랑의 근본으로 삼자는 뜻에서이다. (柳)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유월이군요. 말일이면 1년의 반이 포개지겠군요. 가끔 계절이 바뀔 때면 옛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여름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면 푸른 수박들이 덩굴거리는 밭들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수박 두덩이를 자루에 넣었습니다. 수박 서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어릴때 한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군요. 하하. 그런데 수박이 얼마나 무겁던지. 두 손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한쪽 어깨에 짊어져 보기도 하고... 마을로 난 좁은 길을 걸어내려 오다 '그냥 깨 먹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나더군요. 하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나 도둑이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수박을 어찌어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칼로 수박을 썬 갈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갭게 익어야 할 수박이 노오란게 아닙니까? 저는 그 익지않은 수박을 걸만보고 먼 길을 내려오는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쿵하니 뭔가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도둑질하며 사는 요즘을 자주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늦게나마 그 수박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사죄와 함께. (啟)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꾸꾸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전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

# 2002년도 미술회관 기획공모전 및 대관전시 신청 접수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2002년 전시장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신청 접수마감 : 2001. 6. 30(토)

※ 평일 : 오후 6시까지 / 토요일 : 오후 5시까지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 신청분야

### 1. 기획공모전

- ☞ 대 상 :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의 기획의도가 뚜렷한 우수기획전시 (2인 이상 참여)
- ☞ 형 식 : 우리원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개최되며 2주간 무료대관 및 전시 지원금 지급
- ☞ 요 건
  - 전시기획자가 전시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하여야 함 (공동기획 가능)
  - 반드시 실행 가능한 전시여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심각하게 변하는 경우 전시취소 및 향후 3년간 대관 제한

### 2. 일반대관

- ☞ 대 상 :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 미술작품 전시
- ☞ 대관료 : 1개 전시실 2주 기준으로 3,156,600원
- ☞ 요 건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나 단체
  - 미술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미술교류 전시
  - ※ 단, 아마추어 작가 및 연례적인 동문전 성격의 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전의 경우 기획자의 전시계획서를 첨부해야 함

## ■ 전시기간 및 장소

- ☞ 기 간 : 2002. 1. 8 - 2002. 12. 30.
- ☞ 장 소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제1, 2전시실 (1개 또는 2개 전시장 모두 사용 가능)

## ■ 전시실 현황

- ☞ 제 1전시실 : 140평 (3m×3.8m 칸막이 4개 구비)
- ☞ 제 2전시실 : 140평 (3m×3.8m 칸막이 8개 구비)

## ■ 전시시간

- ☞ 3월 - 10월 : 10:00 - 19:00
- ☞ 11월 - 2월 : 10:00 - 18:00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미술회관 전시 응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 미술회관에서 교부
    - 문예진흥원 홈페이지(www.kcaf.or.kr) 자료실 55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시계획서 1부 (전시개념, 기획의도, 작품내용, 공간연출계획 등 포함)
  - 활동실적자료 (도록, 작품사진, 포트폴리오 등)
    - 제출 자료 중 우리원이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자료는 반환 가능
- ※ 기획공모전과 일반대관에 복수신청 가능 (이 경우 기획공모전 심의에서 탈락시 일반 대관에 포함하여 심의)

- ☞ 접수장소 : 미술회관 2층 사무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 심의결과 발표

- ☞ 미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개별 서면통지(7월말~8월초 예정)

## ■ 문의

- ☞ 담당 : 김춘숙
- ☞ 전화 : 02) 760 - 4605
- ☞ 팩스 : 02) 760 - 4780
- ☞ 이메일 : cskim@kcaf.or.kr
- ☞ 인터넷홈페이지 : www.kcaf.or.kr
- ☞ 주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 위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②번 출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